

Everywhere you want!

이 세상 원하는 곳 어디든
모든 곳이 나의 강의실,
GELS

After 동서

부산 청년 스타트업에
새 바람을 일으키다
디앤컴머스 대표 양옥제·김성훈 동문

도전하는 청춘

도전으로 바뀌어나가는 청춘의 미래

DSU NEWS

MY **BRIGHT** FUTURE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47 Jurye-ro, Sasang-gu, Busan 47011, Korea
www.dongseo.ac.kr
T 051 313 2001~4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좋은
<DSU NEWS>를 만듭니다



Cover Story

그대가 원하는 세상 어디든,
그곳이 당신의 무대입니다.
꿈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더 큰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당신의 꿈을 동서대학교가
응원하겠습니다.

DSU NEWS

Vol. 384

동서대학교 매거진 <DSU NEWS> 통권 384호

발행인 장제국 발행일 2024년 2월 19일

발행처 동서대학교 종합홍보실

제 작 광명정판

※ 본 인쇄물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Special Theme Everywhere You want!

이 세상 원하는 곳 어디든
모든 곳이 나의 강의실, GELS

06

GELS in SAN ANTONIO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다
소프트웨어학과_김종욱

08

GELS in LONDON & PARIS

패션산업의 메카에서 환경오염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얻다
패션디자인학과_박수진 + 박지현

12

GELS in NEW YORK

굴(Oyster)에서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다
광고홍보학과_김소진 + 이지환 + 성민재

14

GELS in NEW YORK

뮤지컬 메소드 연기를 탐구하다
뮤지컬과_이은미 + 김지수 + 장누리

18

GELS in EDINBURGH

예술의 도시 에든버러에서 한국의 문화를 담은 공연을 선보이다
영화과_구아영 + 류예진 + 신승주
연기과_곽다린 + 신범수 + 이주영 + 이주한 + 장재현 + 천대규 + 최은정



18



26

22

GELS in LA

K-라면을 글로벌 라면으로 마케팅하라!
광고홍보학과_김시은 + 이해은 + 김채현

24

GELS in TOKYO+JEJU

로컬 수제맥주 브랜드를 꼼꼼히 파헤치다
경영학전공_문지혁 + 황재현 + 김승하 + 이금희

26

GELS in FUKUOKA

디자인과 문화를 통해 일본을 이해하다
디자인대학 1·2학년

30

GELS in HO CHI MINH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 청춘이라는 시너지를 더하다
경영학전공_황재현 + 정지윤 + 김가영 + 한예주 + 박하영 +
정영빈 + 장지혜 + 최시은 + 권양후

32

GELS in YEOJU

독일 대문호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를 새롭게 해석하다
연기과_정현비 + 전민준 + 김근아 + 노태훈

34

AFTER 동서 ①

교수가 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
나의 미래를 바꾼 세 가지 키워드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광인 동문

36

AFTER 동서 ②

들보 인간의 생존신고, 들보 인간의 대반란이 되다
영화감독 권하정·김아현 동문

38

AFTER 동서 ③

부산 청년 스타트업에 새 바람 일으키다
디앤커머스 대표 양욱제·김성훈 동문

40

도전하는 청춘

도전으로 바뀌어나가는 청춘의 미래

46

동서대 오늘

AI로 제작된 마법소녀 홀로그램 공연,
제25기 최고경영자과정 종강식 및 특강 등



46



SAN ANTONIO
in USA



LONDON in UK &
PARIS in FRANCE



NEW YORK
in USA



LA
in USA



HO CHI MINH
in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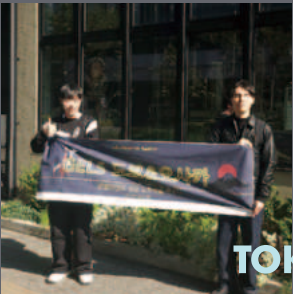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협업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역량은 단순히 강의실에 앉아 듣는 수동적 방식의 수업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 동서대학교는 GELS(Global Experiential Site)를 통해 학생들이 세상 어디서든 배움의 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GELS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만나며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글로벌 자기주도 경험학습 프로그램’이다. 교수도, 강의실도, 시간표도 없다. 오로지 스스로의 판단과 도전만 있을 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고 있는 인재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EVERYWHERE YOU WANT!

이 세상 원하는 곳 어디든
모든 곳이 나의 강의실,



NEW YORK
in USA



TOKYO IN JAPAN &
JEJU in KOREA



EDINBURGH
in UK



FUKUOKA
in JAPAN



YEOJU
in KOREA

GEL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다

소프트웨어학과 김종욱

GELS 샌안토니오 UN프로젝트는 학생들이 UN의 Global Communications 부서와 협의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결과를 UN실무진 앞에서 직접 발표함으로써 국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김종욱 학생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으로 GELS 샌안토니오 UN 프로젝트 2기에 지원하였고, 2023년 1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St. Mary's University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김종욱 학생은 UN SDGs 아이디어를

한곳에 모아둔 공간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디어들을 통합해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웹페이지인 'The Universe'를 고안해냈다. Pinterest와 같은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 웹페이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DB에 저장하고 높은 추천수를 받은 아이디어는 메인 페이지에 자주 노출시키도록 설계하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개인, 기업, 정부, NGO 등에게 공유하여 아이디어 참여 가능성과 SDGs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UN실무진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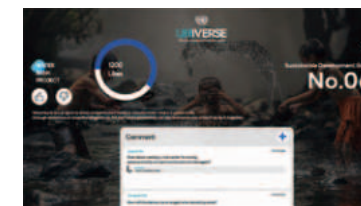
텍사스의 상징, 안토니오 로데오 축제



St.mary's University 학생들과의 교류

Talk about GELS

“4개월 동안의 많은 경험은 내 인생의 지평선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St.mary's University에서 새로운 외국인 친구들과 언어교류를 하며 한국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문화와 축제를 즐기고, 도서관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UN SDGs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토론을 나눈 경험은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한 계기였습니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에, 한국이 아닌 '전 세계라는 무대'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1월 두근두근 설레는 시작

IEP(Intensive English Program)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St Mary's University 학생들과의 토론, 행사 등을 통해 미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내에 운영 중인 동서대학교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실 멘토로도 참여해 한국에 대해 알릴 수 있었다.

2월~3월 미국 문화 알아가기

매년 2월에 열리는 로데오 축제에 참가하고, 한인교회 사람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보다 다양한 미국 문화를 알 수 있었다. 세종학당에서는 임성배 교수님, 호남대 백란 교수님 등 명사초청 특강을 들으며 미래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봄방학을 뜻하는 Spring Break Season에는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 MoMA(뉴욕현대미술관), UN본사건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을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4월 프로젝트 완성의 달

떠나기 전, 마지막 달에는 뜻깊은 행사가 많았다. 정세균 전 총리의 특강을 비롯해, 대학의 Oysterbake 축제로 마지막 일정을 장식하고, IEP Final Test를 통해 한 학기동안 나의 어학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테스트 했다. 그리고 대망의 UN SDGs 발표의 날! 무척 떨렸지만 UN실무진의 좋은 피드백을 받아, 그간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의 아트숍



세계 3대 패션스쿨인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CSM)패션학교에서

패션산업의 메카에서 환경오염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얻다

패션디자인학과 박수진 + 박지현



런던의 업사이클링 제품숍 'Store Store'

GELS in LONDON & PARIS

최근 모든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지속가능성'이다. 패션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 패션산업에 몸담고자 하는 패션디자인학과 박수진·박지현 학생에게도 지속가능이란 키워드는 반드시 숙지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다. 박수진·박지현 학생은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패션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글로벌 패션산업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으로 떠났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지속가능 관련 기관과 교육기관을 방문해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듣고, 지속가능 패션시장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해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왔다.

Project 01.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듣다

해외 지속가능 관련 기관 방문 및 인터뷰

한국보다 10년 먼저 지속가능 문화가 발달한 영국을 방문해 '기후환경실천단체(C&EAG)'와 '지속가능디자인센터(CCD)' 등의 리더들을 만났다. 그들과 패션산업으로 유발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생각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Project 02.**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미래를 보다****해외 지속가능 패션시장조사 및
자체 제작 지속가능 패션 아이템 소비자 반응 조사**

영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문화와 패션시장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프랑스 스니커즈 브랜드 'VEJA' 등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매장들을 방문해 친환경 패션시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박지현 학생이 직접 페플라스틱 원단을 이용해 만든 가방에 대한 현지인들의 구입 유무에 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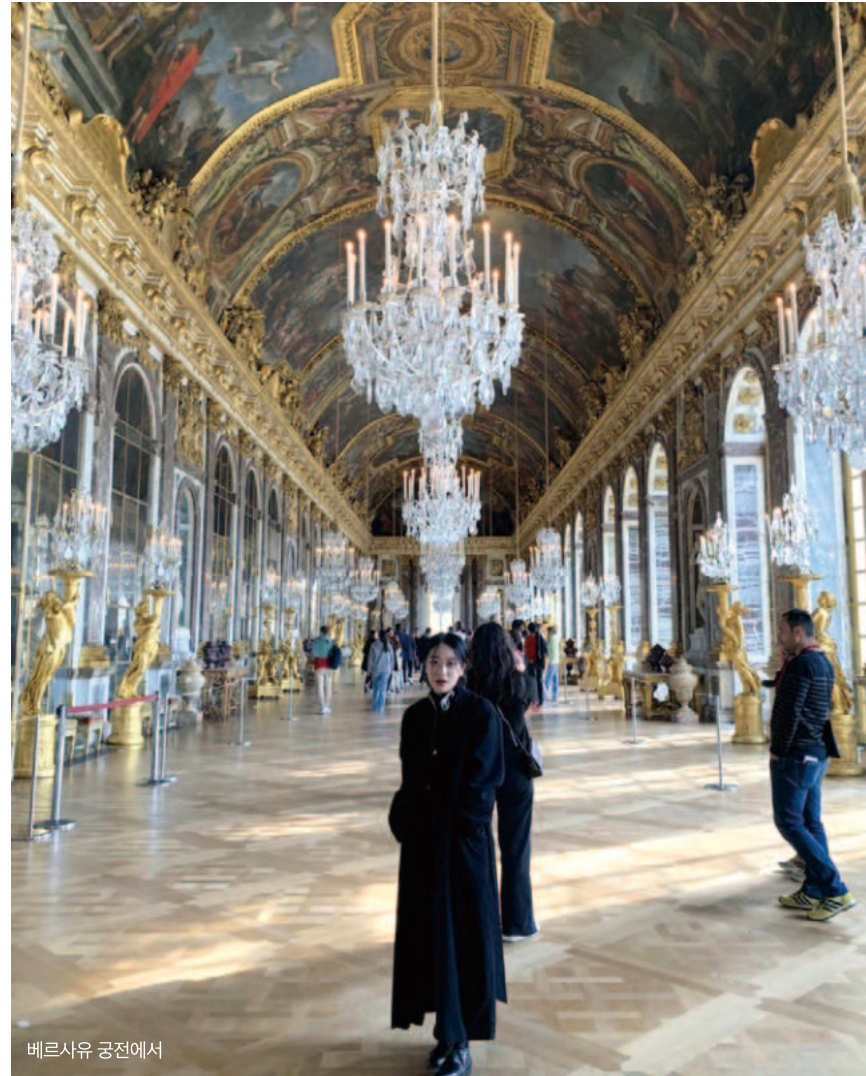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예술대학(LCC)의 실습 시설



프랑스 지속가능성 스니커즈 브랜드 베자(VEJA) 매장 방문

Project 03.**런던과 파리의 예술적
감각을 담고, 익히다****패션잡지에 담은 스냅 사진 촬영**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인 패션잡지에 들어갈 런던과 파리의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런던 빅벤, 트라팔가 광장, 웨스터 민스터 사원, 테이트 모던 미술관부터, 파리의 루브르, 베르사유 궁전, 몽마르뜨 언덕 등의 명소를 돌며 자연스럽게 예술적 분위기의 도시 전경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Talk about GELS

“세계 3대 패션스쿨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CSM), 예술대학인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LCC), 환경단체, 친환경 패션 브랜드 등에 방문해 학교 분위기와 시설을 둘러보고 교수님, 학생 등을 만나 지속가능한 패션, 환경과 디자인에 대한 다양하고 앞서가는 생각과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런던과 파리 특유의 예술적 감성과 분위기 등을 직접 눈에 담고 경험하며 디자인적 감각과 시야를 넓히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과 배움은 패션 분야에서 나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박지현 학생이 페플라스틱 원단을 이용해 제작한 가방

굴(Oyster)에서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다

광고홍보학과
김소진 + 이지환 + 성민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패류
1위를 꼽는다면 단연 ‘굴’이다. 하지만
소비량만큼이나 많이 생산되는 수십만
톤의 굴 폐각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소진,
이지환, 성민재 학생은 팀 ‘Oh! 2 Star’를
꾸려 국내 ‘굴’ 산업현황과 해외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굴 폐각에 포함된
생석회 성분이 물과 반응하면 열을 내는
성질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에 착안해
‘굴 폐각물 생석회(산화칼슘)를 활용한
구멍조끼’ 제작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Oh! 2 Star팀은 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굴 폐각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으로 향했다.



굴 폐각을 활용한 Oystex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JETTY사의
플래그십 스토어



뉴욕 거버너스 아일랜드(Governors Island)의 굴 폐각을 처리시설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다

굴 폐각을 활용해 만든 의류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기업 ‘JETTY’의 대표,
디자이너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굴 폐각
구멍조끼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미노파크’, ‘거버너스섬’
등 뉴욕 곳곳에서 굴 폐각 재활용을 위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엿보며, 굴
폐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 재활용, 친환경에 대한 태도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Talk about GELS

“한 번 가는 것도 어려운 뉴욕을 우리가
계획한 프로젝트를 위해 방문했다는 것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귀한 경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배움에는
한계가 없고, 이 모든 세상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무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도 정말 꿈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뮤지컬 메소드 연기를 탐구하다

뮤지컬과
이은미 + 김지수 + 장누리

온몸으로 느낀 뮤지컬의 A to Z

뮤지컬 본고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리라는 부푼 꿈을 안고 도착한 뉴욕.
장장 17일간의 GELS 뉴욕을 통해 이은미,
김지수, 장누리 학생은 그동안 보고 싶었던
뮤지컬을 관람하고 현지 미국 뮤지컬 배우와
그곳에서 활동 중인 한인 선배 뮤지컬 배우,
연출가를 만나 미국의 뮤지컬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명의 예비 뮤지컬 배우를
가장 설레게 했던 것은 '액터스 스튜디오
워크숍'이었다. 일정 중 5일 동안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연기 수업을 받은 것이다.
그곳에서 보이스 트레이닝과 메소드 연기,
무브먼트 운동 루틴, 보컬수업 등을 들으며
자신이 가진 실력과 역량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뮤지컬을 가르치는 시설인
'뮤지컬 아카데미 AMDA 오픈 하우스', '포덤
대학', 'PACE 대학'을 방문해 시설과 수업을
둘러보았다.

오로지 뮤지컬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시스템들을 보며 꿈과
열정을 다시금 찾고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GELS in

NEW YORK

뮤지컬의 성지,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그곳에 출지어 늘어선
40여 개의 극장에서는 '라이온킹',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 등
유명한 뮤지컬들이 쉴 새 없이 막을 올린다.

전 세계 뮤지컬 배우들에게는 꿈의 도시인 브로드웨이에 이은미,
김지수, 장누리 학생이 다녀왔다. 그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느낀
뮤지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뮤지컬의 대본집과 악보를 볼 수 있는
맨해튼의 드라마 북숍

미국 뮤지컬 배우 JOSH와의 인터뷰

Talk about GELS

이은미

“지구 반대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기에, 더욱이 그곳에 존재하는 뮤지컬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의 뮤지컬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짧았지만 경험해본 미국의 메소드 연기 수업은 특히나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 있지만,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보완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시선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연기적 시도를 할 수 있겠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감각으로 연기를 시도하는 것, 가진 악기대로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 몸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 등 짧아서 아쉬웠지만 이후의 배움은 나의 몫이라는 사실도 인지하며 이곳에 다시 돌아오자고 다짐했습니다. 메소드 연기이론을 접하고, 브로드웨이의 뮤지컬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미국이 왜 문화예술, 공연예술의 선진국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리고 불안했던 미래의 고민들이 많이 해소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김지수

“뮤지컬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뮤지컬의 본고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메소드 연기를 배우면서 이때까지 배웠던 연기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연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메소드 연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예술에 꼭 연결해 가져가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관객 문화,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존중하는 시스템, 공연장을 채우는 배우들의 에너지, 틀에 박혀있지 않은 연기 등..., 아직도 배우고 바뀌어나가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동안 시야는 더욱 넓어졌고, 뮤지컬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마인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뮤지컬 & 줄리엣 관람



뮤지컬 Here Lies Love 관람



맨해튼 투어

장누리

“이번 브로드웨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 ‘뮤지컬’이라는 산업의 최고봉에서 보는 뮤지컬들은 우리나라의 뮤지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더 생각하게 해줬고, 나의 목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배운 메소드 연기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연기에 대한 사고방식과 틀을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남에게 평가받고 지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표하고, 연습했었는데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미국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은 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진짜 나에게 맞는 연기법과 발성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배우들이 오로지 연기와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브로드웨이의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곳에서 배운 지식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나를 성장시켜나갈 것입니다.”

예술의 도시 에든버러에서 한국의 문화를 담은 공연을 선보이다

GELS in EDINBURGH

한국문화는 더 이상 흘러 지나가는 한류가 아닌, 전 세계에 K-Culture라는 하나의 뚜렷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음악과 춤 등의 문화콘텐츠는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기와 학생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공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국제적 문화·예술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Fringe Festival)'이 열리는

영국 에든버러로 향했다. 이 축제는 영국 스코틀랜드 중심 도시인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인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보다 먼저 열리는 축제로, 해마다 코미디, 음악, 뮤지컬, 무용 등 수천 건의 공연이 펼쳐진다. 8월 1일부터 12일, 무려 11박 12일간 예술의 도시에서 연기와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전통혼례와 댄싸움,

제기차기, K-POP 등을 공연으로 재구성하여 세계인들에게 선보이며 학생들의 끼, 우리나라의 문화를 성공적으로 알렸다. 이 모든 장면은 영화과 학생들이 카메라에 담아냈으며, 이는 학생들의 잊지 못할 청춘의 한 페이지이자 미래 소중한 커리어가 되어줄 것이다.

영화과

구아영 + 류예진 + 신승주

연기과

곽다린 + 신범수 + 이주영 + 이주한
장재현 + 천대규 + 최은정



8.1.~8.4.

본격적 공연을 위한 준비

공연 예정인 버스커 스팟을 비롯해 칼튼 힐,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크레이그밀러성 등 도시 곳곳의 명소를 돌며 도시의 분위기를 익혔다.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만난 한국팀의 공연과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군악대 공연, 'Royal Edinburgh Military Tattoo'를 관람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공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다.



에든버러 케슬에서

8.5. ~ 8.10.

**드디어 시작된 공연!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예술의 힘**

오전 10시, 버스킹 공연 추천 장소에서 공연 자격을 부여 받고, 15시 15분 Alcove 1에서 첫 공연의 막이 올랐다. 우리가 준비한 공연은 전통혼례, 닭싸움, 제기차기, K-pop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를 약 40분가량의 시간 안에 녹여낸 공연이다.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해 관객들이 한국의 매력과 풍부한 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하루(8월 7일)를 제외하고 매일 나가 공연을 선보였고, 다른 팀의 공연을 보기도 하며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닌 공연 자체를 즐겼다. 그날그날 공연을 마칠 때마다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보완해서 다음날 공연에 적용할지 이야기를 나누며 공연을 발전시켜나갔다. 우리 공연을 꾸준히 찾는 관객도 생겼고, 관객의 요청에 인터뷰를 하는 등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었다.

8.11.

Good Bye! 에든버러

12시 45분 Alcove 1에서의 공연을 끝으로, 에든버러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에든버러 공연의 준비부터 과정, 마무리까지 11박 12일의 모든 과정은 영화과 친구들이 카메라에 담아주었다. 꿈이 현실이 된 이 모든 여정은 GELS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하지 못할 경험이었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군악대공연.
"Royal Edinburgh Military Tattoo"를 관람



공연을 보던 관객과의 인터뷰

Talk about GELS

구아영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연기과와 협업으로 공연
촬영을 진행하고, 그 공연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막연한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주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거리공연의 특성인 만큼
관객과 어떻게 소통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 연기뿐만 아니라
배우로서의 태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곽다린

“함께 공연을 만드는 것부터
프린지 페스티벌에 공연을
올리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신범수

“공연의 기획부터 공연까지
모든 걸 우리가 해냈다는 그
성취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주한

“학교의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에든버러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배우로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신승주

“영화과로서 해외에서 촬영할
기회가 주어져 무척 행복했고,
다음에는 해외에서 다큐가 아닌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대규

“GELS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 전문과 전공실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넘어,
인생에서의 희망과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류예진

“우리의 카메라에 이 아름다운
나라와 연기와 친구들의
성공적인 첫 해외공연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장재현

“국내에서도 공연 한 편 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외국까지
나가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건
학교 덕분입니다. 이번 경험이
훗날 연기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은정

“공연을 만드는 과정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고민의 순간은 우리를
성장시켰고, 꿈은 꾸는 게 아닌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5. ~ 8.10.

드디어 시작된 공연!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예술의 힘

오전 10시, 버스킹 공연 추천 장소에서 공연 자격을 부여 받고, 15시 15분 Alcove 1에서 첫 공연의 막이 올랐다. 우리가 준비한 공연은 전통혼례, 닭싸움, 제기차기, K-pop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를 약 40분가량의 시간 안에 녹여낸 공연이다.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해 관객들이 한국의 매력과 풍부한 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하루(8월 7일)를 제외하고 매일 나가 공연을 선보였고, 다른 팀의 공연을 보기도 하며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닌 공연 자체를 즐겼다. 그날그날 공연을 마칠 때마다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보완해서 다음날 공연에 적용할지 이야기를 나누며 공연을 발전시켜나갔다. 우리 공연을 꾸준히 찾는 관객도 생겼고, 관객의 요청에 인터뷰를 하는 등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었다.

8.11.

Good Bye! 에든버러

12시 45분 Alcove 1에서의 공연을 끝으로, 에든버러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에든버러 공연의 준비부터 과정, 마무리까지 11박 12일의 모든 과정은 영화과 친구들이 카메라에 담아주었다. 꿈이 현실이 된 이 모든 여정은 GELS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하지 못할 경험이었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군악대공연.
"Royal Edinburgh Military Tattoo"를 관람



공연을 보던 관객과의 인터뷰

Talk about GELS

구아영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연기과와 협업으로 공연
촬영을 진행하고, 그 공연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막연한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주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거리공연의 특성인 만큼
관객과 어떻게 소통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 연기뿐만 아니라
배우로서의 태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곽다린

“함께 공연을 만드는 것부터
프린지 페스티벌에 공연을
올리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신범수

“공연의 기획부터 공연까지
모든 걸 우리가 해냈다는 그
성취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주한

“학교의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에든버러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배우로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신승주

“영화과로서 해외에서 촬영할
기회가 주어져 무척 행복했고,
다음에는 해외에서 다큐가 아닌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대규

“GELS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 전문과 전공실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넘어,
인생에서의 희망과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류예진

“우리의 카메라에 이 아름다운
나라와 연기와 친구들의
성공적인 첫 해외공연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장재현

“국내에서도 공연 한 편 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외국까지
나가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건
학교 덕분입니다. 이번 경험이
훗날 연기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은정

“공연을 만드는 과정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고민의 순간은 우리를
성장시켰고, 꿈은 꾸는 게 아닌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라면을

2023년 출시 6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농심 '신라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AMAZON)의 Korea Food 카테고리에서 베스트 셀러에 꼽히는 인기 제품이다. 하지만 아직 일본 라면에 밀려 2인자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김시은, 이해은, 김채현 학생은 농심과의 산학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신라면을 미국시장에서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광고 캠페인 제작을 위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갔다. 세 학생은 현지 마트답사와 현지인 반응 및 옥외광고물 조사 등을 진행하고, LA 미국 현지 광고대행사와 협업해 '농심 라면의 신이 되다'라는 새로운 글로벌 마케팅을 제안했다.

GELS in LA

글로벌 라면으로 마케팅 하라!

광고홍보학과

김시은 + 이해은 + 김채현



농심 LA공장 앞에서

농심의 미국 라면 시장 1위 선점을 위한 광고 캠페인 기획

현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라면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광고 캠페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세 광홍이(광고홍보학과 학생을 가리키는 애칭)가 뭉쳤다.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간 광홍이들은 미국 현지 광고 대행사와 협업을 통해 오로지 신라면 1위 만들기에만 몰두했다. 한인마트 답사와 LA지역의 옥외광고물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시장조사를 하고, 기획안을 준비했다. 발품 팔며 영혼을 갈아 넣어 완성한 기획안은 농심 아메리카 라면공장의 현지 임직원들 앞에서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어디서도 쉽게 하지 못할 경험, 그것으로부터 오는 완전히 새로운 배움. 그것은 GELS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H마트 답사



농심 LA공장 견학

Talk about GELS

김시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뭔가 막혀있던 부분이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되니 후배님들도 꼭 한 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은

“더 넓은 세상에서 뭘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나아간다면 세상 어디서든 못 할 건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채현

“지도 밖 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뭘 수 있는 역할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쿄까지!

경영학전공

문지혁 + 황재현 + 김승하 + 이금희

각 지역마다 그곳의 특색이 강하게 묻어나는 수제맥주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 로컬 브랜드의 수제맥주는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과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산은 어떨까? 경영학전공 학생 4명으로 이뤄진 '프로젝트 원더풀스팀'은 우선, 수제맥주 문화가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제주도와 일본 도쿄의 로컬 수제맥주들이 궁금했다.

원더풀스팀은 제주도와 도쿄의 로컬 수제 맥주 브랜드의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제 맥주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부산 수제 맥주 브랜드의 정체성과 성장전략에 대한 답을 찾아나갔다.



히타치노 브루잉 전략개발팀장 메구미와의 인터뷰

수제맥주 도시, 부산을 위하여!

부산 수제맥주의 현재 위치와 시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했다. 프로젝트 원더풀스팀(이하 원더풀스팀)은 부산만큼이나 지역 특색이 강한 제주와 로컬 맥주의 인기가 높은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제주도로 향했다. 원더풀스팀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의 스톤아일랜드 탭 하우스, 맥파이 브루어리 등을 방문해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후 해외 수제맥주 시장과의 비교를 위해 맥주의 천국, 일본으로 향했다.

로컬 수제맥주 브랜드를 꼼꼼히 파헤치다



도쿄 내 8개의 점포를 가진 요호 브루잉

GELS in

TOKYO+JEJU

Talk about GELS

문지혁

“로컬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도전이 곧 배움이다’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황재현

“이미 레드오션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끝까지 매달리는 대표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하

“도전하는 자만이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금희

“팀원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등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한뼘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로컬 브랜드 맥주들의 인기가 높은 일본이라면, 부산 수제맥주 시장 활성화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한 일본. 원더풀스팀은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도쿄와 오사카의 다양한 브루어리(히타치노 브루잉, 요호 브루잉, 미노비어, 스프링 비어밸리 등)를 방문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현지 소비자들을 상대로 수제맥주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로컬 맥주에 대해 보다 깊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양국의 비교를 통해 부산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았고, 로컬 브랜드 마케팅의 개념과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제주도 맥파이 브루잉

디자인과 문화를 통해 일본을 이해하다

디자인대학 1·2학년

디자인대학은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년 GELS Design Global을 진행한다.

2023년 선택한 디자인 도시는 일본 후쿠오카.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3박 4일 동안 큐슈산업대학에서 작품전시를 하고, 페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을 견학하는 등 일본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디자인에 관한 영감을 얻고 돌아왔다.

GELS in FUKUOKA

Talk about GELS

김예진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일본에서의 작품 전시는 앞으로 나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느낀 점은 그 작품을 제작할 때 드는 생각과 느낌을 잘 메모해야겠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의 느낌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작품의 느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소정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를 경험하다보면 디자인적인 눈이 더욱 넓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 언어공부까지 함께 해서 꼭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손세민

시각디자인전공

“이번 후쿠오카 디자인 탐방에서 덕분에 내년 과제에 쓸 아이디어를 많이 저장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미야치타게 신사

정지민

패션디자인학과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그때 사귀었던 일본인 친구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친구들까지, 이 프로그램 덕에 정말 소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시은

시각디자인전공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와 상의하며 함께 일을 풀어나갔습니다. 해외에서의 이런 경험은 나를 성장시켰고, 앞으로의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지만 짝 찬 디자인 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한 디자인대학의 디자인학부와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제품인터랙션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건축학과, 광고홍보학과 학생 20명은 4명씩 5팀으로 나눠 3박 4일간(6. 26. ~ 29.)의 후쿠오카 일정을 소화하였다.

GELS Design Fukuoka는 후쿠오카의 대학 및 기업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이다.

큐슈산업대학에서는 작품 전시를 통한 학생 교류가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kiix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례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인 무나카타다케 신사(宗像大社)와 미야치타게 신사(宮地嶽神社) 등 일본의 전통문화유산을 탐방하며 보다 다양한 문화적 식견을 넓혔다.

(주)kiix에서 진행한
페플라스틱 재활용 사례 견학과
후쿠가와 대표의 특강

박서준

디자인학부

“일본의 일상을 카메라로 담고, 식문화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인 친구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큐슈산업대학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작품교류전

이석호

건축학과

“작품에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들지만, 그 이상으로 얻은 경험들이 많기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무나카타다케 신사



경영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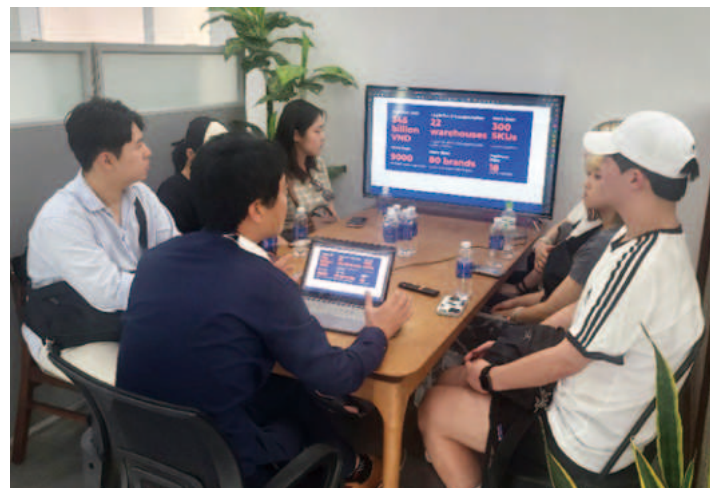
황재현 + 정지윤

김가영 + 한예주

박하영 + 정영빈

장지혜 + 최시은

권양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청춘이라는
시너지를
더하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홍삼. 특히 베트남은 홍삼을 포함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주목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전문의약품 기업인 종근당바이오 역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베트남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종근당바이오는 동서대학교와의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베트남 MZ를 겨냥한 건강기능식품 '발효홍삼유산균' 홍보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

경영학전공 학생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광고 플랫폼인 '숏폼'을 제안했고,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호찌민에서 직접 이벤트성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의뢰 기업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Talk about GELS

황재현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더 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해보면서 부족한 면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하영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앞으로 삶을 위한 큰 자산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GELS in HO CHI MINH

베트남 MZ를 겨냥한 SNS광고 제작

건강기능식품의 주 타깃층은 중장년층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20~30대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40%를 차지하고, 한국처럼 MZ세대의 소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젊은 층에게 익숙한 SNS '숏폼 콘텐츠'를 이용한 광고를 제작할 계획을 세웠다. 베트남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See chin(띵띵땅땅) 챌린지를 바탕으로 면역력과 장 건강이라는 제품의 효능과 스티킹으로 언제, 어디서나 섭취할 수 있다는 기능적인 면을 호찌민 거리의 모습과 함께 재미있게 담아냈다. 거기다 콘텐츠 영상 속에

숨겨 놓은 홍삼을 찾는다는 콘셉트를 더해 광고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만들었다. 또한 학생들은 광고 제작을 진행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CJ푸드빌, SM TOWN 등 국내 대기업을 방문해 현지 시장과 베트남 시장의 가능성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낯선 환경 속,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독일 문학의 거장인 괴테가 60년의 세월을 담아 만든 필생의 역작이라 불리는 희곡 '파우스트'. 이 작품은 연극과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아직도 우리 곁에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은 파우스트를 연기해보고 싶어 할 정도다.

연기와 학생들은 파우스트를 낭독극으로 새롭게 풀어내고 싶었고, 이를 의미 있는 곳에서 공연하길 원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우리나라 여주의 '여백서원'이었다.

전영애 교수가 평생 연구하며 모은 괴테의 책과 자료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보다 더 파우스트 공연을 위한 최고의 장소가 있을까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GELS라고 꼭 해외일 필요는 없다. GELS KOREA 여주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꿈을 의미 있게 이루고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곳이 곧 세계라는 GELS의 취지를 잘 보여준 공연이었다.



괴테 전문가 전영애 교수님

독일 대문호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를 새롭게 해석하다

연기와

정현비 + 전민준 + 김근아 + 노태훈

괴테 연구의 대가와 함께한 여주에서의
파우스트 공연

8월 26일, 괴테 전문가라 불리는

전영애 교수가 설립한 여주

'여백서원'에서 '파우스트'의 낭독극이

열렸다. 연기와 학생 4명으로 구성된

허밍버드(HUMMINGBIRD)팀이

주인공이었다. 괴테로 가득한 공간에서 펼쳐진

허밍버드팀의 공연에 전영애 교수의 파우스트

강연이 더해져 극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높인

뜻깊은 시간이었다.



Talk about GELS

정현비

“여백서원은 파우스트를 수십 년간 연구하신 전영애 교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괴테 하우스가 존재하는 곳이어서 파우스트를 공연하기에는 정말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5시간이라는 긴 공연을 끝마치고 받았던 관객분들의 박수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민준

“너무 잘 알려졌지만 막대한 양의 대작인 파우스트를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도움, 공연하는 친구들과의 끊임없이 소통하며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으로 극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근아

“우리의 공연을 청청해주는 관객들, 그리고 그들의 격려의 말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공연을 마무리하면서 성취의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인지 다시금 느끼기도 했습니다.”

노태훈

“공연을 준비하면서 선배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평소 내가 가진 고쳐야 할 습관, 힘을 빼면서 대사를 읽는 방법, 발성을 더욱 잘 쓰는 법, 상대방과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기를 공부해나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ELS in KOREA YEOJU

교수가 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

나의 미래를 바꾼 세 가지 키워드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광인 동문

포항공과대학교의 전자전기공학과와 인공지능대학원에서 머신러닝과 컴퓨터비전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광인 교수. 그는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동문이다. 평범한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이 어떻게 전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포항공과대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 김광인 동문이 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후배들에게 그 비결을 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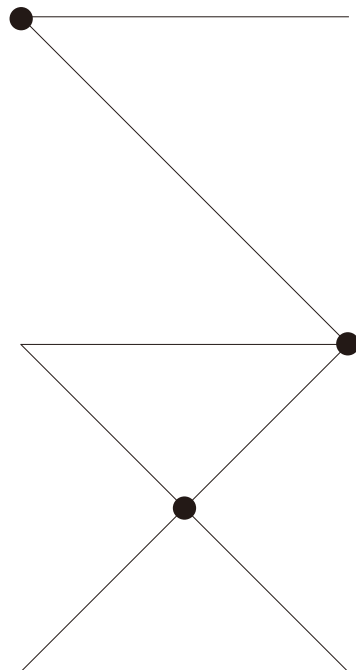
시간관리

“4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이고 집중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대학은 지식 습득, 학문적 탐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장소이며, 더불어 자기 주도적인 공부와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4년 내외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은 선별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해 실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일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휴식과 여가 시간을 일·공부 시간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이 일이나 공부하는 시간과 겹치면 그만큼 집중도는 떨어지고, 결국 일 처리하는 시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교 후에는 소셜미디어나 게임보다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주도 학습+개발

“내 수준에 맞춰 학습단계를 조절해 나가세요”

학생들은 선택한 전공 분야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아울러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려는 분야의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나의 수준’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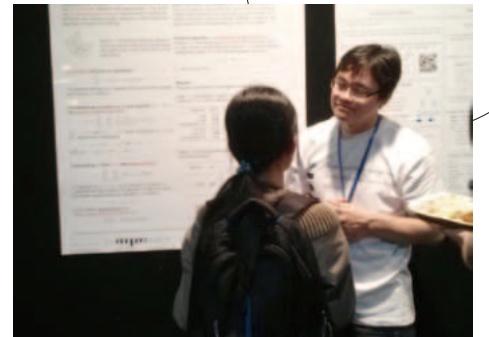
전공 교과과정은 주로 평균적인 학생들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수준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학습단계를 조절하고, 자기 평가를 통해 이해가 잘 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더라도 꾸준히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일입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깊이는 이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었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지, 원래 방법과 고려한 대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동료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와 해결 방법을 분석하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규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왜 필요한지, 다른 과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려하는 것 또한, 전공 전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네트워킹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의 시각과 능력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대학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넓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같은 전공 분야의 동료들과는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이후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이를 통해 협력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강연이나 워크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강연자들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관찰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기술과 문화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과 변화하는 환경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공이든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철저하게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특정 지식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며,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듣보 인간의 생존신고, 듣보 인간의 대반란이 되다

영화감독 권하정·김아현 동문

‘듣보잡’의 준말인 ‘듣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한 사람 또는 물건, 작품 등을 말한다. 여기 ‘듣보 인간’에서, ‘네임드(인지도 있는, 알려진) 인간’으로 거듭난 두 사람이 있다. 바로 영화감독 권하정·김아현 동문이다. 귀여운 세 청춘의 가수 이승윤 뮤직비디오 제작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듣보인간의 생존신고’에서 주인공 듣보인간이자, 감독으로 활약한 두 사람의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권하정 동문



김아현 동문

Q. 영화가 1만 명을 넘었고, 관객들의 호평이 쏟아졌어요. 독립영화로서는 흥행에 성공한 경우예요. 무명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무명 신인 감독들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하정 그 당시에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건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단 발적인 행위가 아닌 아티스트와 함께 무언가를 창작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이승윤 씨를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가수의 팬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한 명의 창작

자로서 함께 작업하고 싶었어요.

아현 ‘이승윤 씨의 팬이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친구인 하정 언니가 당시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어렵사리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제안한 일이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민하고 제안한 일인지 알기에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의 마음을 쫓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이승윤 씨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Q. 뚜렷한 커리어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승윤 씨와 작업하게 되었나요?

아현 진정성 있게 우리가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무작정 노래 한 곡을 뽑아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어요. 손편지와 함께 이승윤 씨에게 전달했고, 진심이 통했는지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안을 하는 것이 질문 그대로 쉽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용기와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어요.

Q. 뮤직비디오로 촬영한 노래는 ‘영웅수집가’였어요.

아현 이승윤 씨에게 데모곡을 받아 친구들끼리 각자 들어보고 뮤직비디오로 만들고 싶은 곡을 3순위까지 정해서 회의를 한 결과 영웅수집가로 결정이 났어요. 후에 알고 보니, 영웅수집가가 앨범 타이틀곡이었어요. 너무 다행이었죠.

하정 여러 개의 데모곡 중 가사를 모르는 상태로 들었을 때 꽂혔던 노래 중 하나였어요.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딱이다’ 싶었고, 아현과 촬영을 도와준 은하의 우선순위에도 그 곡이 있었죠.

Q. 뮤직비디오의 제작과정을 담아 영화로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나요?

아현 처음 기록의 시작은 뮤직비디오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서였어요. 15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어 제출해야 했거든요. 근데 찍다보니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록해 나갔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Q. 단순히 담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무언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정 솔직히 말해 영화라고 불리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야기에 봐주시는 분들이 종종 각자만의 의미를 찾아주세요. 그분들이 봐주시는 다양한 의미가 결국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Q. 어찌 보면 영화인으로서의 시작점을 만들어준 동서대 영화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화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정 학교를 다닐 땐 모두가 진심이었던 시절 같아요. 더 좋은 촬영 장비로 영화를 찍겠다고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더 좋은 날짜에 촬영하고, 더 좋은 편집실을 사용하려고 기를 쓰고 경쟁했죠. 그런 경쟁이 피곤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작품을 잘 만들고 싶었던 멋진 열정이었어요. 과하다 싶은 열정이 저를 성장시킨 거겠죠.

아현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지도교수님한테 받았던 피드백은 어디에서도 받지 못할 배움이었어요. 팀원들과 하나씩 준비하고 이득과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느꼈던 성취감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고요. 그렇게 영화과는 영화를 계속해서 꿈꿀 수 있게 해줬죠.

Q. 꿈이 있는 청춘들의 미래는 늘 궁금하네요. 영화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하정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고, 잘하는 일이 직업이 되어 돈을 버는 것이 꿈이에요.

아현 제 주변에는 각자 다르게 좋은 자극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 또한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엇보다 영화 만드는 일을 오래, 잘 할 수 있는 감독이 되고 싶어요.

부산 청년 스타트업에 새 바람을 일으키다

디앤커머스 대표 양욱제·김성훈 동문

지난 12월 21일 총장실에서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한 주인공은 IT 기업인 디앤커머스의 양욱제, 김성훈 대표. 여기까진 별다른 것 없는 기부 뉴스지만, 이 기부 소식이 좀 더 특별해지는 이유는 두 사람 모두 동서대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청년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온 그들을 만나 대학시절,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좌. 양욱제, 우. 김성훈

창업에 눈을 뜨다

2018년 문을 연 디앤커머스는 소프트웨어개발과 데이터기반 마케팅을 기반으로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IT기업이다. 임직원 모두가 20~30대로 구성되어 있어 도전정신, 실력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한다. 창업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지만, 해마다 2배씩 매출이 오르는 등 꾸준히 성장세를 타며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곳의 공동대표인 양욱제, 김성훈 동문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출신 선후배 사이이자 연구실 동기였다.

두 사람은 학부생 시절부터 꾸준히 창업을 꿈꿨다. 양욱제 동문은 창업 관련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했고, 김성훈 동문은 대학시절 교환학생으로 갔던 핀란드에서 한 기업을 방문 후 '이렇게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어 김성훈 동문은 2017년 한 학기 졸업을 유예하고 팀을 만들어 창업을 시도했지만, 당시는 열정만 앞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이후 양욱제 동문은 졸업 후 학내 해외취업 사업을 통해 미국에서 개발자로 근무했고, 김성훈 동문 역시 바로 취업했다. 하지만 취업보단, 창업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에 다시 한번 스타트업에 도전했다. 양욱제 동문이 먼저였다. "회사의 체계와 프로세스 속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기업 운영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한다면 더 효율적인 조직문화와 사업 프로세스를 가진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죠"

2년 뒤에 합류한 김성훈 동문은 시작부터 좀 더 단단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많은 자문을 구했다. "졸업 후에도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을 만나서 창업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고, 주저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단

나를 바꾼 기회, DSU

두 사람의 인생주거에서 '동서대학교'는 특별한 기회였다. 세상을 더 넓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양욱제 동문은 지금의 나를 만든 8월은 모교였다고 말한다. "정말 등록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매주 연구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공모전에도 꾸준히 참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외봉사활동, 핀란드 오울루 대학교 교환학생, 해외취업 등 열정 있고 가능성만 있으면 학교는 학생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때 배웠고 경험한 것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늘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김성훈 동문 역시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이 창업의 밑거름이었다고 덧붙인다. "미국 CES탐방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 친구들도 안 만나고 밤새면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을 다녀오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어쩌면 그때의 무모한 시도들이 창업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그 시절, 노력과 경험 덕분에 두 사람은 이제 촉망 받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은 이런 두 사람을 만들어준 모교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한 덕분에인지 작년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양욱제 대표와 한숨 돌리며 주변을 돌아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모교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모교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며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작지만 이 돈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어, 큰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은 말처럼 쉽지 않다. 양욱제 대표와 김성훈 대표는 그럼에도 전진하라고 조언한다. "누구나 어려운 문제에 계속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보단,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유명한 영화 대사를 빌리자면, '성공하면 창업, 실패하면 경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창업에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나아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후배님들의 미래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핀란드 교환학생 프로그램

도전으로 바뀌어가는 청춘의 미래

학생들에게 현재는 '도전'이다. 도전하는 청춘만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나만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멋진 청춘들의 행보를 소개한다.



Talk of Winner

광고홍보학과 강소연
(레드닷 어워드, Best of Best)
최고상인 Best of Best를 받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방학도 없이 매주 회의, 밤샘 작업을 했기에 정말 값진 수상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따라와 준 팀원들과 함께 했기에 이런 영예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조현호
(부산국제광고제, Crystal)
타 과 학생들과 함께 광고제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야들과의 융합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결과 보여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팀이 마주하게 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수상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시각디자인전공 조현민
(레드닷 어워드, Winner)
세계 최고의 공모전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팀원들의 진심 어린 고민과 교수님들의 조언을 통해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각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화기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융합

창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



- 레드닷 어워드에서 Best of Best 포함 Winner 11개 작품 수상
- 미국 THE ONE SHOW AWARDS에서 FINALIST 2팀 수상
- 부산국제광고제에서 12개 작품 수상

광고의 핵심은 '창의성'이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서대는 '융합'이라는 교육 방식을 사용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어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SW중심대학사업단, LINC 3.0 사업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진 융합 교육 프로그램 중 '아이디어선용합실습 수업'과 '창의적문제해결 수업'이 그것이다. 이런 특수한 교육 덕분에

학생들은 매년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연이어 성과를 이룩해 내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레드닷 어워드(Reddott Award)에서만 총 11개의 Winner를 수상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썼다. 수상 작품 중 'Amazon Smile Tape'는 Winner 중 상위 1%에게만 수여하는 Best of Best에도 선정되었다. Best of Best 작품은 독일 베를린 레드닷 전시관에 영구히 전시된다. 이로써 동서대는 4년 연속 Best of Best를 수상하고 지난 9년 동안 총 39작품이 WINNER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1973년에 창립되어 50년의 역사를 가진 The One Show Awards에서 Happy McTime, Touchable Hair Catalog 두 작품이 Finalist를 수상한 것이다. 이 상은 광고 및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국제대회 중 하나로 The Andy Awards, Cannes Lions, D&AD 등과 함께 광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국제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MAD STARS)에도 동서대의

이름이 올랐다. 2023년 63개국에서 총 2만 282편이 출품된 부산국제광고제에서 은상 수상과 더불어, 6개의 Crystal, 5개의 Finalist까지 총 12개 작품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은상 수상 학생들은 제일기획, 덴츠, TBWA 등 13개 광고대행사와 매칭하여 인턴십 자격이 주어지고, 국내 굴지의 글로벌 광고대행사 인턴십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다.



- 웹툰학과, 부산구치소 새얼굴만들기 벽화 프로젝트
- 웹툰학과,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선정
- 웹툰학과 '제2회 대학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홍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소통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

우리는 보통 말과 글 같은 언어로 서로 소통한다. 하지만 그림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과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많다. 웹툰학과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도 그중 하나다. LINC 3.0사업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기업 연계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된 결과물로, 웹툰학과 자원봉사단 15명이 4주간 매주 토요일 마다 구치소 내부 벽면을 예술작품으로 채워 나갔다. 벽면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인 '보라미'와 '보드미', 귀여운 동물 등 따뜻하고 희망적인 예술작품을 제공해 방문 민원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의 벽화는 구치소에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으며, 이런 작업들은 지역 사회 통합과 회복 과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웹툰학과 1학년 재학생 4팀이 선정된 '2023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도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예비 콘텐츠 창작자의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및 지역 콘텐츠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총 21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웹툰학과 1학년 김연우·김휘민(울산 고래 기반 서브컬처 스타일 캐릭터 및 O2O 콘텐츠 개발), 김혜빈·조윤경(울산 태화강에 모이는 백로들과 장미축제를 합쳐 만든 스토리텔링 지역 캐릭터를 기반으로 O2O 무빙툰 제작 및 굿즈 제작), 강한나(울산의 설화, 여나산곡을 시각화한 콘텐츠 제작), 박재상·옥동호(울산지역의 상징들을 소재로 한 지역홍보, 관광 상품 제작)의 기획이 선정되어 쟁쟁한 콘텐츠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뛰어난 전공 실력을 입증했다. 선정된 학생들은 울산콘텐츠코리아랩의 지원을 받아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학생들이 제작한 캐릭터들은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다. 최근 11월에 발표한 '제2회 대학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홍보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미래 세대들이 우리 무형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한국문화재단에서 개최한 경진대회로, 총 70개 팀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5팀이 결선에 진출했고, 그중 2팀이 동서대 팀이었다. 우수상은 '제주 해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모바일 게임' 콘텐츠로 김휘민, 김연우 팀이, 장려상은 '무형문화재 웹툰 박물관에 탄생한다'는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인 정다인, 이결 팀이 수상하였다. 웹툰학과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웹툰 작가를 넘어, 종합적인 콘텐츠 기획까지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작가 및 PD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협력

가능성을 키우는
함께의 가치

- 2023 ESG콘텐츠 아이디어톤에서 서울시 중구청장상 수상
- K-Design International Award에서 GOLD 수상
- B.SORI 프로젝트 시즌 4에서 최우수상 수상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인정받던 시대를 지났다. 현재 산업계와 사회는 현장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 동서대는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해결 공모전,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23 ESG 콘텐츠 아이디어톤'에서 동서대 을지라이트팀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ESG 대학연합 소속 8개교(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제주대학교, 한림대학교, 호남대학교) 이상 8개 대학 LINC 3.0 사업단이 주최한 대회로, 대학, 산업 네트워크, 지자체가 연대한 서울 중심 도심의 인쇄산업 부문의 콘텐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대회에서 을지라이트팀(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김려원 학생, 허유진 학생, 방송영상학과 김소현 학생)은 인쇄 및 봉제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종이를 재료로 활용하여 을지로의 골목 분위기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굿즈인 '을지로 가게 콘셉트의 무드등 & 술잔 수납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대상인 '서울시 중구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K-Design International Award'에서도 GOLD WINNER를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 대회는 매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는 국제공모전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명확한 아이덴티티와 잠재력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상이다. 2023년에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1,967개 작품이 출품되었다. 수상 카테고리는 COMMUNICATION부분, INDUSTRIAL부분,



SPACE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서대는 COMMUNICATION 부분의 GOLD WINNER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인 ‘CRUSH MONSTER’는 금속 캔인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압축 작업을 펀치 머신과 융합한 아이디어로서 음료를 마신 후 CRUSH MONSTER에 캔을 인식 후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재활용 인식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작품은 광고홍보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가 협업하는 ‘아이데이션융합실습’ 수업의 결과물이다. 동남권 10개 대학의 LINC 3.0 사업단(동서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동의과학대, 부경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보건대, 울산대, 한국해양대)이 2020년 이후 네 번째로 공동 주최한 ‘B.SORI 프로젝트 시즌4’에서는 시각디자인전공의 박제이, 이수진 학생이 속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 ICC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각 대학별로 10명이 참가했고, 같은 대학 학생 2인이 다른 대학 학생 2인과 한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박제이 학생과 이수진 학생이 속한 꼬마기사단팀은 ‘CO₂ 저감 차원에서 소형차량의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인공지능응용학과와 서부경 학생과 정승환 학생이 속한 초전도체팀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장시훈 학생, 웹툰학과 조윤경 학생이 속한 팀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경영학전공 황승환 학생, 인공지능응용학과 홍승민 학생의 Job silver팀과 전자공학과 김담운 학생, 연기와 최지혜 학생의 2인 1조팀이 수상하였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은 기획력과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로 거듭날 것이다.

Talk of Winner

소프트웨어학과 김현서(K-Design International Award, GOLD)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팀원들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협업과 창의성이 현대 사회에서 가치 있는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SPACE 세상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든든한 날개

- 게임학과와 연이은 수상 행진
-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 부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수상
- 방송영상학과 졸업작품 6편, KTV에 편성



미디어콘텐츠대학은 문화콘텐츠 분야 아시아 1등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송영상학과와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가 모여 출범했으며, 적극적인 교육 지원과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생들은 뛰어난 대외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방송영상학과는 4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졸업작품 6편이 정부가 운영하는 KTV국민방송에 공식 편성되는 성과를 거뒀다. 작품들은 2024년 1월부터 편성되며, 6편의 작품 중 ‘행복한 노인의 생활’(김경민, 서연수, 박정현 외)은 경남 함안에 사는 70대 할머니와 손녀의 여행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방송영상학과 졸업작품상영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게임학과 역시 올해도 다양한 실적을 쏟아내며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해마다 개최되는 ‘2023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에서 재학생 작품이 경쟁 부문에 4개, 비경쟁 부문에 3개가 선정되어 게임 기업 및 개발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작을라이언트팀(권민혁 외 7명)이 개발한 ‘FIXER’ 게임은 높은 완성도로 오픈마켓인 스토브 인디에 정식 출시하는 등 학생들의 역량과 게임에 대한 열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게임엔진인 ‘포톤’과 클라우드 플랫폼 ‘엔클라우드24’가 개최한 ‘게임잼 시상식’에서 이재환, 안성준, 여형욱 학생이 ‘Squid Tango’ 게임으로 베스트 학생상을 수상하였다. ‘2023 부산 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는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 13팀의 작품이 대상(1팀)부터 우수상(1팀), 장려상(3팀), 특선(8팀)까지 모두 휩쓰는 기록을 세웠다. 대상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눈사람의 모험이야기인 ‘스노키오(김성은, 이수민, 함희권, 이지예, 진미수, 송경진)’가 수상하였다. 특히 13편의 작품 중 장려상을 수상한 ‘네 흉처에 독을 탔어’는 유튜브(YouTube) 조회 수가 50만 회를 넘어서며 학생은 물론, 학과까지 주목받고 있다. 미디어콘텐츠대학이 다양한 공모전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수한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 기업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소통, 학생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Talk of Winner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김성은, 이수민, 이지예, 진미수, 함희권, 송경진
(부산 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처음 지원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많은 작품 중 최고로 선택해주셔서 전공분야에서 인정받는 느낌이었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애니메이션의 길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DSU TODAY

AI로 제작된 마법소녀 홀로그램 공연



11월 28일 동서대학교는 소항씨어터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마법소녀 홀로그램 공연을 선보였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2023 콘텐츠원캠퍼스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AI+콘텐츠 융합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번 마법소녀 홀로그램 공연은 참여기관인 지역 공중파 방송국인 KNN과 함께 20명의 교육생이 23년 1학기와 2학기의 교육기간 동안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고 랜더링된 4명의 가상 마법소녀를 제작하고, 인공지능으로 작사·작곡한 곡을 마법소녀 아이들이 불렀다. 또한 뮤

지컬 공연장에서 실제 배우와 가상 배우 간의 혼합 홀로그램 뮤지컬 공연은 유튜브로 스트리밍 되었다. 이번 공연은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던 뮤지컬, 방송, 컴퓨터그래픽, AI 분야 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 인재들을 배출하여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앞으로도 동서대학교는 인공지능과 콘텐츠 여러 분야의 융합의 결과물인 인공지능 마법소녀 캐릭터 결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제25기 최고경영자과정 종강식 및 특강



제25기 최고경영자과정 종강식과 특강이 12월 1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제25기 원우 50여 명과 장제국 총장, 김정은 총괄부총장, 남호수 교학부총장, 경남정보대학교 박용수 총괄부총장, 보직교수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특강 강연자로 참석한 부산시 사상구 국회의원의 장제원 의원은 '한국 정치와 부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부산의 미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제25기의 졸업과 함께 최고경영자과정은 그간의 네트워크를 결집하기 위한 총동문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제25기 졸업생에 대한 수료증서는 2024년 2월 16일, 학위수여식에서 전달하였다.



AI 신기술 몰입형 체험존 국내 최초 제작
대학부설연구소 LDS AI+X융합연구센터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적용된 AI신기술 몰입형 체험존을 전국 최초로 제작하였다. 부산광역시청 들락날락에 설치된 체험존은 CONNECT.it와 ExPLORE.it 총 2개로 운영된다. CONNECT.it는 체험존을 체험하는 관람객의 생각대로 방에서 열쇠를 찾아 탈출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있다. ExPLORE.it에서는 ChatGP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휴먼 체험과 AI 가상아이돌 및 AI가 제작한 드라마 시연도 가능하다. 이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체험 가능하다.



'제22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 개최 확정
지난 12월에 열린 제21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Asia University Presidents Forum)에서 동서대학교가 참가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2024년 '제22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 '2024년 Asia Summer Program' 및 '2025년 Asia Faculty Workshop'의 유지를 확정지었다. 앞서 11월 28일에는 태국 Siam University, 방글라데시 Daffodil International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필리핀 Panpacific University와는 위탁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별도 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중국연구센터-사상구, 2023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
중국연구센터와 사상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23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최종 선정되었다. 그 결과, 연간 1억 4,000만 원씩 향후 3년간 4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중국연구센터와 사상구가 제안한 이 사업의 주제는 '사상 쉰나(SSinA) 프로젝트'로 사상의 아시아 이주민 특히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들이 구민들과 함께 화합하여 '인문강좌·인문축제·인문체험행사' 등을 경험하는 사업이다.



뮤지컬과, 예비 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선정
뮤지컬과가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인 '예술대학의 예비 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뮤지컬과는 교내 가상기업(IFS-In School Field System) '동서 뮤지컬엔터테인먼트' 설립을 통한 예비 예술인 현장연계 프로젝트를 제안해 최대 지원금인 2억 원을 지원받는다. 뮤지컬엔터테인먼트는 인터파크씨어터, 신시컴퍼니 등 뮤지컬 전문 기업들과 제휴해 기업탐방, 탭댄스, 보컬 등의 특강을 거친 후 지역 기업 연계 뮤지컬 공연을 제작, 공연하여 단원들의 프로 무대 진출을 지원한다.



호텔경영학과와 아난티 기업이 만든 교육 플랫폼 구축
호텔경영학과는 2023년 2학기(취업연계)핵심교육과정으로 학과 내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난티 부산 지역 플랫폼과 '아난티 운영관리'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이 교과목은 아난티 그룹에서 운영하는 주요 호텔&리조트 계열사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아난티 기업은 본 교과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호텔경영학과에 참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더불어 우수 수료생들에게는 아난티 플랫폼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패션그룹형지와 '디지털 패션 융합 트랙' 운영
패션디자인학과가 LINC 3.0 사업단의 IFS 3.0 기업트랙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패션융합 트랙'을 운영 중이다. 그 일환으로 패션그룹형지와 MOU를 맺고 10월 27일 교수 및 학생들이 기업 본사를 방문해 실무자들과 만나고 기업 현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 탐방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클래스셀링®(Class Selling®) 연계 프로젝트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다. 또한 사육을 돌아보고, 업무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향후 진로와 취업에 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DSU TODAY



부·울·경 우수기업 초청 ‘DSU현장연결 채용박람회’ 개최

2023 DSU현장연결 채용박람회가 11월 8일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일보 등 지역 내 우수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함께 하였다. 가장 핵심 프로그램인 채용면접부스에는 부·울·경 지역 우수기업인 (주)파나시아, (주)대선주조, (주)오리엔탈정공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여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한 기업/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취업에 관한 동기부여의 장을 제공하였다.



AI+X Nexus 체험존 개소식

동서대학교는 11월 15일 SW융합대학 학술제(쇼미더동서AI) 행사에서 DSU AI+X Nexus 체험존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 체험존은 인공지능과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경험할 수 있는 6가지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개소식에서는 AI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험과 축하공연 등이 열렸다. 체험존은 인공지능이 응용된 산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장감 있는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실제적인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ESG경영선포식 개최

동서대학교는 11월 15일 스튜던트 플라자에서 ESG경영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동서대만의 단계별 ESG경영 모델로 ‘이제(E) 실천(S) 해이지(G)’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환경(E) 분야, 사회적 책임(S) 분야, 거버넌스(G) 분야에 대한 ESG경영 8대 전략을 수립하여, 선포식에서 공식 발표하였다. 또한 연계행사로 ESG 공모전, ESG 포토존, ESG 플리마켓 등을 함께 운영하며 학내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주)네오위즈와 산학협정 체결

동서대학교는 11월 16일 센텀캠퍼스에서 (주)네오위즈와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성공적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각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 및 공동 이익이 되는 사업 협력’,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게임산업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상호 발전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게임산업 분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해구경제대학교와 교류 협정

동서대학교는 7월 23일 온라인으로 중국 해구경제대학교와 양교 교류협력에 관한 상제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양교는 2022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2023년도에 양 대학의 실무자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1 편입학 프로그램, 학점인정 유학 프로그램, 4+2 석사연계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교육 협력이 담긴 포괄 협력협정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북방국제대학연맹 학술교류협정 체결

12월 5일 중국 북경북방투자그룹 우바오더(WU BAODE) 부총재 및 산하 북방국제대학연맹 소속 대학들의 총장 및 관계자 일행이 본교를 방문하여, 동서대와 북방국제대학연맹 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장제국 총장과 우바오더 부총재는 양 기관 간의 교육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교환학생프로그램, 공동교육과정프로그램, 동서대의 디자인, IT, 영화, 영상 등 특성화 분야의 선진화된 기술과 플랫폼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KBS부산방송총국, (주)비브스튜디오스와 산학협정 체결

KBS부산방송총국과 (주)비브스튜디오스, 동서대학교는 8월 11일 동서대 글로벌룸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업 협력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문화콘텐츠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각 영역에서 축적해 온 정보 및 인적자원을 적극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문화콘텐츠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송월과 클래스셀링® 업무협약 체결

(주)송월은 동서대학교와 클래스셀링® 운영을 위해 9월 5일 뉴밀레니엄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동서대학교와 (주)송월이 동영상을 활용한 송월타올 생산라인 교육 매뉴얼 제작(캡스톤디자인) 산학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양 기관은 다양한 산학협력으로 지역인재양성과 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으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 10개 LINC 3.0 사업단과 ESG 대학연합 업무협약 체결

LINC 3.0 사업단은 11월 9일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경남대와 동국대, 고려대, 대전대, 한서대, 제주대, 호남대, 계명대, 한림대 간 ‘LINC 3.0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ESG 대학연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각 대학은 ‘ESG 기반 산학협력 정보공유, 공동연구’, ‘ESG 기반 대학인프라, 아이디어 공유 및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 협업 활동’, ‘대학 간 ICC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미래 신산업 및 지역 정부 및 층형 인재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건축학과,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학생부문 대상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건축학과 학생팀이 학생부문 대상(전체 1등, 상금 1,000만 원)을 수상하였다. 건축학과 3학년 이상하, 김민주, 정진규, 석다윤팀은 [잇:다]라는 작품으로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고양시 창릉 신도시(예정지)를 대상으로 상업·주거·문화공간의 특성을 살리면서, 각 공간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계획해 미래 한옥 도시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설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졸업생 이영은 선수, 항저우아시안게임 요트 종목 동메달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 요트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한 졸업생 이영은(체육학과 12학번)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카이트보딩은 대형 연을 풍력으로 삼아 물 위로 보딩을 가로지르는 해양스포츠로, 이영은 선수(부안군청 소속)는 카이트보딩이 국내에서 비인기종목임에도 꾸준히 도전을 이어오며 성적을 내어 왔다. 수년간 전국 카이트보딩 대회에서 1위를 유지하였고, 특히 2018 Thailand Kiteboarding Championship 프리스타일에서 아시아 챔피언에 오른 바 있다.



총학생회,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진행

총학생회는 11월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총학생회와 지역 봉사자들이 힘을 합해 정성껏 만든 김치는 학장동행정복지센터에 150박스, 주례 1, 2, 3동에 50박스 등 총 200박스(500만 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이웃 주민들에게 추위를 이겨낼 따뜻한 위로의 의미도 함께 담아 전달되었다.

나만의 봄을
기다리는

그대에게

시간은 흘러 다시, 봄이 옵니다.
찬란한 꽃으로 뒤덮일 캠퍼스의 모습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옵니다.

언제 또 이렇게 코앞까지 봄이 왔는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무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피는 꽃은 없습니다.
꽃은 지는 순간부터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타는 듯한 더위와 칼바람,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지난한 시간을 견뎌왔기에,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는 봄.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봄은 아직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봄날처럼 꿈을 활짝 꽃피울 그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신만의 봄을 마음껏 만끽하길 바랍니다.

총장 장 제국

K-라면을

2023년 출시 6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농심 ‘신라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AMAZON)의 Korea Food 카테고리에서 베스트 셀러에 꼽히는 인기 제품이다. 하지만 아직 일본 라면에 밀려 2인자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김시은, 이해은, 김채현 학생은 농심과의 산학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신라면을 미국시장에서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광고 캠페인 제작을 위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갔다. 세 학생은 현지 마트답사와 현지인 반응 및 옥외광고물 조사 등을 진행하고, LA 미국 현지 광고대행사와 협업해 ‘농심 라면의 신이 되다’라는 새로운 글로벌 마케팅을 제안했다.

글로벌 라면으로 마케팅 하라!

광고홍보학과

김시은 + 이해은 + 김채현



농심 LA공장 앞에서

GELS in LA

농심의 미국 라면 시장 1위 선점을 위한 광고 캠페인 기획

현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라면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광고 캠페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세 광홍이(광고홍보학과 학생을 가리키는 애칭)가 뭉쳤다.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간 광홍이들은 미국 현지 광고 대행사와 협업을 통해 오로지 신라면 1위 만들기에만 몰두했다. 한인마트 답사와 LA지역의 옥외광고물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시장조사를 하고, 기획안을 준비했다. 발품 팔며 영혼을 갈아 넣어 완성한 기획안은 농심 아메리카 라면공장의 현지 임직원들 앞에서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어디서도 쉽게 하지 못할 경험, 그것으로부터 오는 완전히 새로운 배움. 그것은 GELS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H마트 답사



농심 LA공장 견학

Talk about GELS

김시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뭔가 막혀있던 부분이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되니 후배님들도 꼭 한 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은

“더 넓은 세상에서 뭘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나아간다면 세상 어디서든 못 할 건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채현

“지도 밖 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뭘 수 있는 역할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쿄까지!

경영학전공

문지혁 + 황재현 + 김승하 + 이금희

각 지역마다 그곳의 특색이 강하게 묻어나는 수제맥주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 로컬 브랜드의 수제맥주는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과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산은 어떨까? 경영학전공 학생 4명으로 이뤄진 '프로젝트 원더풀스팀'은 우선, 수제맥주 문화가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제주도와 일본 도쿄의 로컬 수제맥주들이 궁금했다.

원더풀스팀은 제주도와 도쿄의 로컬 수제 맥주 브랜드의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제 맥주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부산 수제 맥주 브랜드의 정체성과 성장전략에 대한 답을 찾아나갔다.



히타치노 브루잉 전략개발팀장 메구미와의 인터뷰



도쿄 내 8개의 점포를 가진 요호 브루잉

로컬 수제맥주 브랜드를 꼼꼼히 파헤치다

Talk about GELS

문지혁

“로컬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도전이 곧 배움이다’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황재현

“이미 레드오션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끝까지 매달리는 대표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하

“도전하는 자만이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금희

“팀원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등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한뼘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GELS in

TOKYO+JEJU

수제맥주 도시, 부산을 위하여!

부산 수제맥주의 현재 위치와 시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했다. 프로젝트 원더풀스팀(이하 원더풀스팀)은 부산만큼이나 지역 특색이 강한 제주와 로컬 맥주의 인기가 높은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제주도로 향했다. 원더풀스팀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의 스톤아일랜드 탭 하우스, 맥파이 브루어리 등을 방문해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후 해외 수제맥주 시장과의 비교를 위해 맥주의 천국, 일본으로 향했다.

한국보다 로컬 브랜드 맥주들의 인기가 높은 일본이라면, 부산 수제맥주 시장 활성화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한 일본. 원더풀스팀은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도쿄와 오사카의 다양한 브루어리(히타치노 브루잉, 요호 브루잉, 미노비어, 스프링 비어밸리 등)를 방문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현지 소비자들을 상대로 수제맥주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로컬 맥주에 대해 보다 깊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양국의 비교를 통해 부산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았고, 로컬 브랜드 마케팅의 개념과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제주도 맥파이 브루잉

디자인과 문화를 통해 일본을 이해하다

디자인대학 1·2학년

디자인대학은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년 GELS Design Global을 진행한다.

2023년 선택한 디자인 도시는 일본 후쿠오카.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3박 4일 동안 큐슈산업대학에서 작품전시를 하고, 페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을 견학하는 등 일본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디자인에 관한 영감을 얻고 돌아왔다.

GELS in FUKUOKA

Talk about GELS

김예진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일본에서의 작품 전시는 앞으로 나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느낀 점은 그 작품을 제작할 때 드는 생각과 느낌을 잘 메모해야겠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의 느낌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작품의 느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소정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를 경험하다보면 디자인적인 눈이 더욱 넓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 언어공부까지 함께 해서 꼭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손세민

시각디자인전공

“이번 후쿠오카 디자인 탐방에서 덕분에 내년 과제에 쓸 아이디어를 많이 저장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미야치타게 신사

정지민

패션디자인학과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그때 사귀었던 일본인 친구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친구들까지, 이 프로그램 덕에 정말 소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시은

시각디자인전공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와 상의하며 함께 일을 풀어나갔습니다. 해외에서의 이런 경험은 나를 성장시켰고, 앞으로의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지만 짙은 디자인 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한 디자인대학의 디자인학부와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제품인터랙션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건축학과, 광고홍보학과 학생 20명은 4명씩 5팀으로 나눠 3박 4일간(6. 26. ~ 29.)의 후쿠오카 일정을 소화하였다.

GELS Design Fukuoka는 후쿠오카의 대학 및 기업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이다.

큐슈산업대학에서는 작품 전시를 통한 학생 교류가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kiix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례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인 무나카타다케 신사(宗像大社)와 미야치타게 신사(宮地嶽神社) 등 일본의 전통문화유산을 탐방하며 보다 다양한 문화적 식견을 넓혔다.

(주)kiix에서 진행한
페플라스틱 재활용 사례 견학과
후쿠가와 대표의 특강

이석호

건축학과

“작품에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들지만, 그 이상으로 얻은 경험들이 많기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박서준

디자인학부

“일본의 일상을 카메라로 담고, 식문화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인 친구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큐슈산업대학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작품교류전



세계문화유산인 무나카타다케 신사

경영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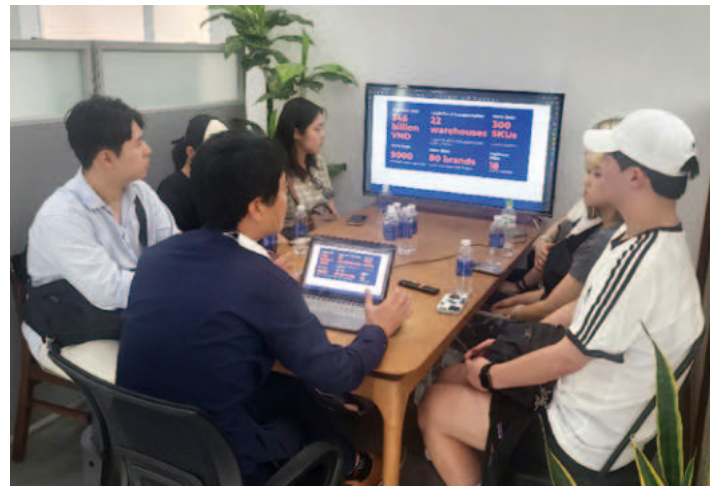
황재현 + 정지윤

김가영 + 한예주

박하영 + 정영빈

장지혜 + 최시은

권양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청춘이라는
시너지를
더하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홍삼. 특히 베트남은 홍삼을 포함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주목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전문의약품 기업인 종근당바이오 역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베트남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종근당바이오는 동서대학교와의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베트남 MZ를 겨냥한 건강기능식품 '발효홍삼유산균' 홍보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

경영학전공 학생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광고 플랫폼인 '숏폼'을 제안했고,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호찌민에서 직접 이벤트성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의뢰 기업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Talk about GELS

황재현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더 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해보면서 부족한 면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하영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앞으로 삶을 위한 큰 자산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GELS in HO CHI MINH

베트남 MZ를 겨냥한 SNS광고 제작

건강기능식품의 주 타깃층은 중장년층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20~30대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40%를 차지하고, 한국처럼 MZ세대의 소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젊은 층에게 익숙한 SNS '숏폼 콘텐츠'를 이용한 광고를 제작할 계획을 세웠다. 베트남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See chin(땡땡땡땡) 챌린지를 바탕으로 면역력과 장 건강이라는 제품의 효능과 스티킹으로 언제, 어디서나 섭취할 수 있다는 기능적인 면을 호찌민 거리의 모습과 함께 재미있게 담아냈다. 거기다 콘텐츠 영상 속에

숨겨 놓은 홍삼을 찾는다는 콘셉트를 더해 광고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만들었다. 또한 학생들은 광고 제작을 진행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CJ푸드빌, SM TOWN 등 국내 대기업을 방문해 현지 시장과 베트남 시장의 가능성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낯선 환경 속,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독일 문학의 거장인 괴테가 60년의 세월을 담아 만든 필생의 역작이라 불리는 희곡 '파우스트'. 이 작품은 연극과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아직도 우리 곁에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은 파우스트를 연기해보고 싶어 할 정도다.

연기와 학생들은 파우스트를 낭독극으로 새롭게 풀어내고 싶었고, 이를 의미 있는 곳에서 공연하길 원했다. 그렇게 선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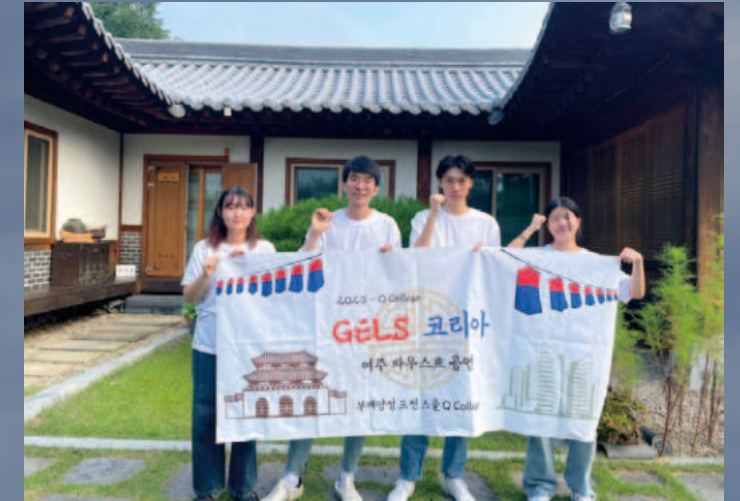
곳이 우리나라 여주의 '여백서원'이었다.

전영애 교수가 평생 연구하며 모은 괴테의 책과 자료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보다 더 파우스트 공연을 위한 최고의 장소가 있을까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GELS라고 꼭 해외일 필요는 없다. GELS KOREA 여주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꿈을 의미 있게 이루고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곳이 곧 세계라는 GELS의 취지를 잘 보여준 공연이었다.



괴테 전문가 전영애 교수님



독일 대문호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를 새롭게 해석하다

연기와

정현비 + 전민준 + 김근아 + 노태훈

괴테 연구의 대가와 함께한 여주에서의
파우스트 공연

8월 26일, 괴테 전문가라 불리는

전영애 교수가 설립한 여주

'여백서원'에서 '파우스트'의 낭독극이

열렸다. 연기와 학생 4명으로 구성된

허밍버드(HUMMINGBIRD)팀이

주인공이었다. 괴테로 가득한 공간에서 펼쳐진

허밍버드팀의 공연에 전영애 교수의 파우스트

강연이 더해져 극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높인

뜻깊은 시간이었다.



Talk about GELS

정현비

“여백서원은 파우스트를 수십 년간 연구하신 전영애 교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괴테 하우스가 존재하는 곳이어서 파우스트를 공연하기에는 정말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5시간이라는 긴 공연을 끝나치고 받았던 관객분들의 박수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민준

“너무 잘 알려졌지만 막대한 양의 대작인 파우스트를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도움, 공연하는 친구들과의 끊임없이 소통하며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으로 극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근아

“우리의 공연을 정정해주는 관객들, 그리고 그들의 격려의 말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공연을 마무리하면서 성취의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인지 다시금 느끼기도 했습니다.”

노태훈

“공연을 준비하면서 선배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평소 내가 가진 고쳐야 할 습관, 힘을 빼면서 대사를 읽는 방법, 발성을 더욱 잘 쓰는 법, 상대방과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기를 공부해나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ELS in KOREA YEOJU

교수가 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

나의 미래를 바꾼 세 가지 키워드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광인 동문

포항공과대학교의 전자전기공학과와 인공지능대학원에서 머신러닝과 컴퓨터비전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광인 교수. 그는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동문이다. 평범한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이 어떻게 전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포항공과대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 김광인 동문이 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후배들에게 그 비결을 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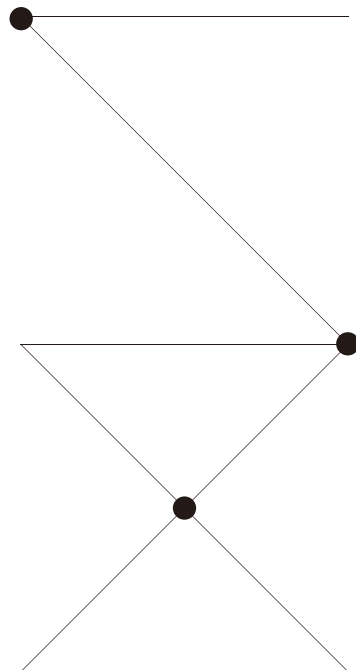
시간관리

“4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이고 집중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대학은 지식 습득, 학문적 탐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장소이며, 더불어 자기 주도적인 공부와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4년 내외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은 선별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해 실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일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휴식과 여가 시간을 일·공부 시간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이 일이나 공부하는 시간과 겹치면 그만큼 집중도는 떨어지고, 결국 일 처리하는 시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교 후에는 소셜미디어나 게임보다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주도 학습+개발

“내 수준에 맞춰 학습단계를 조절해 나가세요”

학생들은 선택한 전공 분야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아울러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나가기야 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려는 분야의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나의 수준’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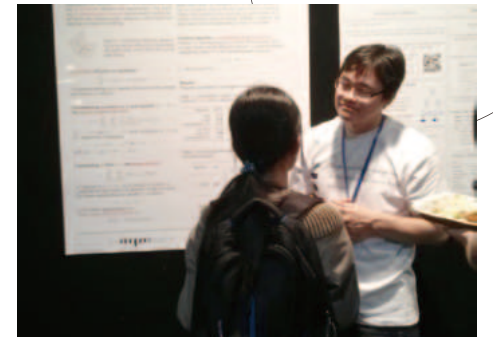
전공 교과과정은 주로 평균적인 학생들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수준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학습단계를 조절하고, 자기 평가를 통해 이해가 잘 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더라도 꾸준히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깊이는 이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었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지, 원래 방법과 고려한 대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동료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와 해결 방법을 분석하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규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왜 필요한지, 다른 과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려하는 것 또한, 전공 전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네트워킹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의 시각과 능력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대학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넓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같은 전공 분야의 동료들과는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이후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이를 통해 협력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강연이나 워크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강연자들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관찰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기술과 문화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과 변화하는 환경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공이든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철저하게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특정 지식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며,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듣보 인간의 생존신고, 듣보 인간의 대반란이 되다

영화감독 권하정·김아현 동문

‘듣보잡’의 준말인 ‘듣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한 사람 또는 물건, 작품 등을 말한다. 여기 ‘듣보 인간’에서, ‘네임드(인지도 있는, 알려진) 인간’으로 거듭난 두 사람이 있다. 바로 영화감독 권하정·김아현 동문이다. 귀여운 세 청춘의 가수 이승윤 뮤직비디오 제작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듣보인간의 생존신고’에서 주인공 듣보인간이자, 감독으로 활약한 두 사람의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권하정 동문



김아현 동문

Q. 영화가 1만 명을 넘었고, 관객들의 호평이 쏟아졌어요. 독립영화로서는 흥행에 성공한 경우예요. 무명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무명 신인 감독들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하정 그 당시에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건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단 발적인 행위가 아닌 아티스트와 함께 무언가를 창작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이승윤 씨를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가수의 팬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한 명의 창작

자로서 함께 작업하고 싶었어요.

아현 ‘이승윤 씨의 팬이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친구인 하정 언니가 당시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어렵사리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제안한 일이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민하고 제안한 일인지 알기에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의 마음을 쫓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이승윤 씨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Q. 뚜렷한 커리어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승윤 씨와 작업하게 되었나요?

아현 진정성 있게 우리가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무작정 노래 한 곡을 뽑아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어요. 손편지와 함께 이승윤 씨에게 전달했고, 진심이 통했는지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안을 하는 것이 질문 그대로 쉽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용기와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어요.

Q. 뮤직비디오로 촬영한 노래는 ‘영웅수집가’였어요.

아현 이승윤 씨에게 데모곡을 받아 친구들끼리 각자 들어보고 뮤직비디오로 만들고 싶은 곡을 3순위까지 정해서 회의를 한 결과 영웅수집가로 결정이 났어요. 후에 알고 보니, 영웅수집가가 앨범 타이틀곡이었어요. 너무 다행이었죠.

하정 여러 개의 데모곡 중 가사를 모르는 상태로 들었을 때 꽂혔던 노래 중 하나였어요.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딱이다’ 싶었고, 아현과 촬영을 도와준 은하의 우선순위에도 그 곡이 있었죠.

Q. 뮤직비디오의 제작과정을 담아 영화로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나요?

아현 처음 기록의 시작은 뮤직비디오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서였어요. 15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어 제출해야 했거든요. 근데 찍다보니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록해 나갔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Q. 단순히 담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무언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정 솔직히 말해 영화라고 불리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야기에 봐주시는 분들이 종종 각자만의 의미를 찾아주세요. 그분들이 봐주시는 다양한 의미가 결국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Q. 어찌 보면 영화인으로서의 시작점을 만들어준 동서대 영화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화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정 학교를 다닐 땐 모두가 진심이었던 시절 같아요. 더 좋은 촬영 장비로 영화를 찍겠다고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더 좋은 날짜에 촬영하고, 더 좋은 편집실을 사용하려고 기를 쓰고 경쟁했죠. 그런 경쟁이 피곤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작품을 잘 만들고 싶었던 멋진 열정이었어요. 과하다 싶은 열정이 저를 성장시킨 거겠죠.

아현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지도교수님한테 받았던 피드백은 어디에서도 받지 못할 배움이었어요. 팀원들과 하나씩 준비하고 이득과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느꼈던 성취감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고요. 그렇게 영화과는 영화를 계속해서 꿈꿀 수 있게 해줬죠.

Q. 꿈이 있는 청춘들의 미래는 늘 궁금하네요. 영화를 만드는 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하정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고, 잘하는 일이 직업이 되어 돈을 버는 것이 꿈이에요.

아현 제 주변에는 각자 다르게 좋은 자극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 또한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엇보다 영화 만드는 일을 오래, 잘 할 수 있는 감독이 되고 싶어요.

부산 청년 스타트업에 새 바람을 일으키다

디앤커머스 대표 양욱제·김성훈 동문

지난 12월 21일 총장실에서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한 주인공은 IT 기업인 디앤커머스의 양욱제, 김성훈 대표. 여기까진 별다른 것 없는 기부 뉴스지만, 이 기부 소식이 좀 더 특별해지는 이유는 두 사람 모두 동서대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청년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온 그들을 만나 대학시절,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좌. 양욱제, 우. 김성훈

창업에 눈을 뜨다

2018년 문을 연 디앤커머스는 소프트웨어개발과 데이터기반 마케팅을 기반으로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IT기업이다. 임직원 모두가 20~30대로 구성되어 있어 도전정신, 실력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한다. 창업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지만, 해마다 2배씩 매출이 오르는 등 꾸준히 성장세를 타며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곳의 공동대표인 양욱제, 김성훈 동문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출신 선후배 사이이자 연구실 동기였다.

두 사람은 학부생 시절부터 꾸준히 창업을 꿈꿨다. 양욱제 동문은 창업 관련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했고, 김성훈 동문은 대학시절 교환학생으로 갔던 핀란드에서 한 기업을 방문 후 ‘이렇게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어 김성훈 동문은 2017년 한 학기 졸업을 유예하고 팀을 만들어 창업을 시도했지만, 당시는 열정만 앞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이후 양욱제 동문은 졸업 후 학내 해외취업 사업을 통해 미국에서 개발자로 근무했고, 김성훈 동문 역시 바로 취업했다. 하지만 취업보단, 창업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에 다시 한번 스타트업에 도전했다. 양욱제 동문이 먼저였다. “회사의 체계와 프로세스 속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기업 운영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한다면 더 효율적인 조직문화와 사업 프로세스를 가진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죠.”

2년 뒤에 합류한 김성훈 동문은 시작부터 좀 더 단단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많은 자문을 구했다. “졸업 후에도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을 만나서 창업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고, 주저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단

나를 바꾼 기회, DSU

두 사람의 인생주거에서 ‘동서대학교’는 특별한 기회였다. 세상을 더 넓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양욱제 동문은 지금의 나를 만든 8할은 모교였다고 말한다. “정말 등록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매주 연구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공모전에도 꾸준히 참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외봉사활동, 핀란드 오울루 대학교 교환학생, 해외취업 등 열정 있고 가능성만 있으면 학교는 학생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때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김성훈 동문 역시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이 창업의 밑거름이었다고 덧붙인다. “미국 CES탐방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 친구들도 안 만나고 밤새면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을 다녀오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어쩌면 그때의 무모한 시도들이 창업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그 시절, 노력과 경험 덕분에 두 사람은 이제 촉망 받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은 이런 두 사람을 만들어준 모교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한 덕분에인지 작년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양욱제 대표와 한숨 돌리며 주변을 돌아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모교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모교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며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작지만 이 돈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어, 큰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은 말처럼 쉽지 않다. 양욱제 대표와 김성훈 대표는 그럼에도 전진하라고 조언한다. “누구나 어려운 문제에 계속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보단,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유명한 영화 대사를 빌리자면, ‘성공하면 창업, 실패하면 경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창업에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나아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후배님들의 미래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핀란드 교환학생 프로그램

도전으로 바뀌어가는 청춘의 미래

학생들에게 현재는 '도전'이다. 도전하는 청춘만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나만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멋진 청춘들의 행보를 소개한다.



Talk of Winner

광고홍보학과 강소연
(레드닷 어워드, Best of Best)
최고상인 Best of Best를 받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방학도 없이 매주 회의, 밤샘 작업을 했기에 정말 값진 수상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따라와 준 팀원들과 함께 했기에 이런 영예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조현호
(부산국제광고제, Crystal)
타 과 학생들과 함께 광고제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야들과의 융합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결과 보여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팀이 마주하게 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수상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시각디자인전공 조현민
(레드닷 어워드, Winner)
세계 최고의 공모전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팀원들의 진심 어린 고민과 교수님들의 조언을 통해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각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화기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융합

창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



- 레드닷 어워드에서 Best of Best 포함 Winner 11개 작품 수상
- 미국 THE ONE SHOW AWARDS에서 FINALIST 2팀 수상
- 부산국제광고제에서 12개 작품 수상

광고의 핵심은 '창의성'이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서대는 '융합'이라는 교육 방식을 사용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어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SW중심대학사업단, LINC 3.0 사업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진 융합 교육 프로그램 중 '아이디어선용합실습 수업'과 '창의적문제해결 수업'이 그것이다. 이런 특수한 교육 덕분에

학생들은 매년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연이어 성과를 이룩해 내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레드닷 어워드(Reddott Award)에서만 총 11개의 Winner를 수상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썼다. 수상 작품 중 'Amazon Smile Tape'는 Winner 중 상위 1%에게만 수여하는 Best of Best에도 선정되었다. Best of Best 작품은 독일 베를린 레드닷 전시관에 영구히 전시된다. 이로써 동서대는 4년 연속 Best of Best를 수상하고 지난 9년 동안 총 39작품이 WINNER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1973년에 창립되어 50년의 역사를 가진 The One Show Awards에서 Happy McTime, Touchable Hair Catalog 두 작품이 Finalist를 수상한 것이다. 이 상은 광고 및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국제대회 중 하나로 The Andy Awards, Cannes Lions, D&AD 등과 함께 광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국제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MAD STARS)에도 동서대의

이름이 올랐다. 2023년 63개국에서 총 2만 282편이 출품된 부산국제광고제에서 은상 수상과 더불어, 6개의 Crystal, 5개의 Finalist까지 총 12개 작품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은상 수상 학생들은 제일기획, 덴츠, TBWA 등 13개 광고대행사와 매칭하여 인턴십 자격이 주어지고, 국내 굴지의 글로벌 광고대행사 인턴십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다.



- 웹툰학과, 부산구치소 새얼굴만들기 벽화 프로젝트
- 웹툰학과,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선정
- 웹툰학과 '제2회 대학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홍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소통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

우리는 보통 말과 글 같은 언어로 서로 소통한다. 하지만 그림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과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많다. 웹툰학과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도 그중 하나다. LINC 3.0사업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기업 연계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된 결과물로, 웹툰학과 자원봉사단 15명이 4주간 매주 토요일 마다 구치소 내부 벽면을 예술작품으로 채워 나갔다. 벽면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인 '보라미'와 '보드미', 귀여운 동물 등 따뜻하고 희망적인 예술작품을 제공해 방문 민원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의 벽화는 구치소에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으며, 이런 작업들은 지역 사회 통합과 회복 과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웹툰학과 1학년 재학생 4팀이 선정된 '2023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도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예비 콘텐츠 창작자의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및 지역 콘텐츠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총 21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웹툰학과 1학년 김연우·김휘민(울산 고래 기반 서브컬처 스타일 캐릭터 및 O2O 콘텐츠 개발), 김혜빈·조윤경(울산 태화강에 모이는 백로들과 장미축제를 합쳐 만든 스토리텔링 지역 캐릭터를 기반으로 O2O 무빙툰 제작 및 굿즈 제작), 강한나(울산의 설화, 여나산곡을 시각화한 콘텐츠 제작), 박재상·옥동호(울산지역의 상징들을 소재로 한 지역홍보, 관광 상품 제작)의 기획이 선정되어 쟁쟁한 콘텐츠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뛰어난 전공 실력을 입증했다. 선정된 학생들은 울산콘텐츠코리아랩의 지원을 받아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학생들이 제작한 캐릭터들은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다.

최근 11월에 발표한 '제2회 대학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홍보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미래 세대들이 우리 무형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한국문화재단에서 개최한 경진대회로, 총 70개 팀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5팀이 결선에 진출했고, 그중 2팀이 동서대 팀이었다. 우수상은 '제주 해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모바일 게임' 콘텐츠로 김휘민, 김연우 팀이, 장려상은 '무형문화재 웹툰 박물관에 환생한다'는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인 정다인, 이결 팀이 수상하였다. 웹툰학과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웹툰 작가를 넘어, 종합적인 콘텐츠 기획까지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작가 및 PD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협력

가능성을 키우는
함께의 가치

- 2023 ESG콘텐츠 아이디어톤에서 서울시 중구청장상 수상
- K-Design International Award에서 GOLD 수상
- B.SORI 프로젝트 시즌 4에서 최우수상 수상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인정받던 시대를 지났다. 현재 산업계와 사회는 현장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 동서대는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해결 공모전,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23 ESG 콘텐츠 아이디어톤'에서 동서대 을지라이트팀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ESG 대학연합 소속 8개교(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제주대학교, 한림대학교, 호남대학교) 이상 8개 대학 LINC 3.0 사업단이 주최한 대회로, 대학, 산업 네트워크, 지자체가 연대한 서울 중심 도심의 인채산업 부문의 콘텐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대회에서 을지라이트팀(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김려원 학생, 허유진 학생, 방송영상학과 김소현 학생)은 인쇄 및 봉제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종이를 재료로 활용하여 을지로의 골목 분위기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굿즈인 '을지로 가게 콘셉트의 무드등 & 술잔 수납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대상인 '서울시 중구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K-Design International Award'에서도 GOLD WINNER를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 대회는 매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는 국제공모전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명확한 아이덴티티와 잠재력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상이다. 2023년에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1,967개 작품이 출품되었다. 수상 카테고리는 COMMUNICATION부분, INDUSTRIAL부분,



SPACE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서대는 COMMUNICATION 부분의 GOLD WINNER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인 'CRUSH MONSTER'는 금속 캔인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압축 작업을 펀치 머신과 융합한 아이디어로서 음료를 마신 후 CRUSH MONSTER에 캔을 인식 후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재활용 인식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작품은 광고홍보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가 협업하는 '아이데이션융합실습' 수업의 결과물이다. 동남권 10개 대학의 LINC 3.0 사업단(동서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동의과학대, 부경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보건대, 울산대, 한국해양대)이 2020년 이후 네 번째로 공동 주최한 'B.SORI 프로젝트 시즌4'에서는 시각디자인전공의 박제이, 이수진 학생이 속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 ICC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각 대학별로 10명이 참가했고, 같은 대학 학생 2인이 다른 대학 학생 2인과 한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박제이 학생과 이수진 학생이 속한 꼬마기사단팀은 'CO₂ 저감 차원에서 소형차량의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인공지능응용학과와 서부경 학생과 정승환 학생이 속한 초전도체팀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장시훈 학생, 웹툰학과 조윤경 학생이 속한 팀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경영학전공 황승환 학생, 인공지능응용학과 홍승민 학생의 Job silver팀과 전자공학과 김담운 학생, 연기와 최지혜 학생의 2인 1조팀이 수상하였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은 기획력과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로 거듭날 것이다.

Talk of Winner

소프트웨어학과 김현서(K-Design International Award, GOLD)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팀원들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협업과 창의성이 현대 사회에서 가치 있는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SPACE

세상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든든한 날개

- 게임학과와 연이은 수상 행진
-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 부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수상
- 방송영상학과 졸업작품 6편, KTV에 편성



미디어콘텐츠대학은 문화콘텐츠 분야 아시아 1등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송영상학과와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가 모여 출범했으며, 적극적인 교육 지원과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생들은 뛰어난 대외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방송영상학과는 4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졸업작품 6편이 정부가 운영하는 KTV국민방송에 공식 편성되는 성과를 거뒀다. 작품들은 2024년 1월부터 편성되며, 6편의 작품 중 '행복한 노인의 생활'(김경민, 서연수, 박정현 외)은 경남 함안에 사는 70대 할머니와 손녀의 여행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방송영상학과 졸업작품상영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게임학과 역시 올해도 다양한 실적을 쏟아내며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해마다 개최되는 '2023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에서 재학생 작품이 경쟁 부문에 4개, 비경쟁 부문에 3개가 선정되어 게임 기업 및 개발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작을라이언트팀(권민혁 외 7명)이 개발한 'FIXER' 게임은 높은 완성도로 오픈마켓인 스토브 인디에 정식 출시하는 등 학생들의 역량과 게임에 대한 열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게임엔진인 '포톤'과 클라우드 플랫폼 '엔클라우드24'가 개최한 '게임잼 시상식'에서 이재환, 안성준, 여형욱 학생이 'Squid Tango' 게임으로 베스트 학생상을 수상하였다. '2023 부산 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는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 13팀의 작품이 대상(1팀)부터 우수상(1팀), 장려상(3팀), 특선(8팀)까지 모두 휩쓰는 기록을 세웠다. 대상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눈사람의 모험이야기인 '스노키오(김성은, 이수민, 함희권, 이지예, 진미수, 송경진)'가 수상하였다. 특히 13편의 작품 중 장려상을 수상한 '네 훔차에 독을 탔어'는 유튜브(YouTube) 조회 수가 50만 회를 넘어서며 학생은 물론, 학과까지 주목받고 있다. 미디어콘텐츠대학이 다양한 공모전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수한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 기업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소통, 학생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Talk of Winner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김성은, 이수민, 이지예, 진미수, 함희권, 송경진
(부산 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처음 지원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많은 작품 중 최고로 선택해주셔서 전공분야에서 인정받는 느낌이었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애니메이션의 길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DSU TODAY

AI로 제작된 마법소녀 홀로그램 공연



11월 28일 동서대학교는 소항씨어터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마법소녀 홀로그램 공연을 선보였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2023 콘텐츠원캠퍼스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AI+콘텐츠 융합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번 마법소녀 홀로그램 공연은 참여기관인 지역 공중파 방송국인 KNN과 함께 20명의 교육생이 23년 1학기와 2학기의 교육기간 동안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고 랜더링된 4명의 가상 마법소녀를 제작하고, 인공지능으로 작사·작곡한 곡을 마법소녀 아이들이 불렀다. 또한 뮤

지컬 공연장에서 실제 배우와 가상 배우 간의 혼합 홀로그램 뮤지컬 공연은 유튜브로 스트리밍 되었다.

이번 공연은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던 뮤지컬, 방송, 컴퓨터그래픽, AI 분야 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 인재들을 배출하여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앞으로도 동서대학교는 인공지능과 콘텐츠 여러 분야의 융합의 결과물인 인공지능 마법소녀 캐릭터 결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제25기 최고경영자과정 종강식 및 특강



제25기 최고경영자과정 종강식과 특강이 12월 1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제25기 원우 50여 명과 장제국 총장, 김정선 총괄부총장, 남호수 교학부총장, 경남정보대학교 박용수 총괄부총장, 보직교수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특강 강연자로 참석한 부산시 사상구 국회의원인 장제원 의원은 '한국 정치와 부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부산의 미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제25기의 졸업과 함께 최고경영자과정은 그간의 네트워크를 결집하기 위한 총동문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제25기 졸업생에 대한 수료증서는 2024년 2월 16일, 학위수여식에서 전달하였다.



AI 신기술 몰입형 체험존 국내 최초 제작

대학부설연구소 LDS AI+X융합연구센터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적용된 AI신기술 몰입형 체험존을 전국 최초로 제작하였다. 부산광역시청 들락날락에 설치된 체험존은 CONNECT.it와 ExPLORE.it 총 2개로 운영된다. CONNECT.it는 체험존을 체험하는 관람객의 생각대로 방에서 열쇠를 찾아 탈출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있다. ExPLORE.it에서는 ChatGP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휴먼 체험과 AI 가상아이돌 및 AI가 제작한 드라마 시연도 가능하다. 이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체험 가능하다.



'제22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 개최 확정

지난 12월에 열린 제21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Asia University Presidents Forum)에서 동서대학교가 참가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2024년 '제22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 '2024년 Asia Summer Program' 및 '2025년 Asia Faculty Workshop'의 유지를 확정지었다. 앞서 11월 28일에는 태국 Siam University, 방글라데시 Daffodil International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필리핀 Panpacific University와는 위탁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별도 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중국연구센터-사상구, 2023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

중국연구센터와 사상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23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최종 선정되었다. 그 결과, 연간 1억 4,000만 원씩 향후 3년간 4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중국연구센터와 사상구가 제안한 이 사업의 주제는 '사상 쉰나(SSinA) 프로젝트'로 사상의 아시아 이주민 특히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들이 구민들과 함께 화합하여 '인문강좌·인문축제·인문체험행사' 등을 경험하는 사업이다.



뮤지컬과, 예비 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선정

뮤지컬과가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인 '예술대학의 예비 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뮤지컬과는 교내 가상기업(IFS-In School Field System) '동서 뮤지컬엔터테인먼트 설립을 통한 예비 예술인 현장연계' 프로젝트를 제안해 최대 지원금인 2억 원을 지원받는다. 뮤지컬엔터테인먼트는 인터파크씨어터, 신시컴퍼니 등 뮤지컬 전문 기업들과 제휴해 기업탐방, 탭댄스, 보컬 등의 특강을 거친 후 지역 기업 연계 뮤지컬 공연을 제작, 공연하여 단원들의 프로 무대 진출을 지원한다.



호텔경영학과와 아난티 기업이 만든

교육 플랫폼 구축

호텔경영학과는 2023년 2학기(취업연계)핵심교육과정으로 학과 내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난티 부산 지역 플랫폼과 '아난티 운영관리'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이 교과목은 아난티 그룹에서 운영하는 주요 호텔&리조트 계열사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아난티 기업은 본 교과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호텔경영학과에 참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더불어 우수 수료생들에게는 아난티 플랫폼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패션그룹형지와 '디지털 패션 융합 트랙' 운영

패션디자인학과가 LINC 3.0 사업단의 IFS 3.0 기업트랙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패션융합 트랙'을 운영 중이다. 그 일환으로 패션그룹형지와 MOU를 맺고 10월 27일 교수 및 학생들이 기업 본사를 방문해 실무자들과 만나고 기업 현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 탐방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클래스셀링®(Class Selling®) 연계 프로젝트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다. 또한 사육을 돌아보고, 업무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향후 진로와 취업에 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DSU TODAY



부·울·경 우수기업 초청 ‘DSU현장연결 채용박람회’ 개최

2023 DSU현장연결 채용박람회가 11월 8일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일보 등 지역 내 우수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함께 하였다. 가장 핵심 프로그램인 채용면접부스에는 부·울·경 지역 우수기업인 (주)파나시아, (주)대선주조, (주)오리엔탈정공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여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한 기업/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취업에 관한 동기부여의 장을 제공하였다.



AI+X Nexus 체험존 개소식

동서대학교는 11월 15일 SW융합대학 학술제(쇼미더동서AI) 행사에서 DSU AI+X Nexus 체험존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 체험존은 인공지능과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경험할 수 있는 6가지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개소식에서는 AI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험과 축하공연 등이 열렸다. 체험존은 인공지능이 응용된 산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장감 있는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실제적인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ESG경영선포식 개최

동서대학교는 11월 15일 스튜던트 플라자에서 ESG경영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동서대만의 단계별 ESG경영 모델로 ‘이제(E) 실천(S) 해이지(G)’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환경(E) 분야, 사회적 책임(S) 분야, 거버넌스(G) 분야에 대한 ESG경영 8대 전략을 수립하여, 선포식에서 공식 발표하였다. 또한 연계행사로 ESG 공모전, ESG 포토존, ESG 폴리마켓 등을 함께 운영하며 학내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주)네오위즈와 산학협정 체결

동서대학교는 11월 16일 센텀캠퍼스에서 (주)네오위즈와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성공적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각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 및 공동 이익이 되는 사업 협력’,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게임산업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상호 발전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게임산업 분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해구경제대학교와 교류 협정

동서대학교는 7월 23일 온라인으로 중국 해구경제대학교와 양교 교류협력에 관한 상제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양교는 2022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2023년도에 양 대학의 실무자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1 편입학 프로그램, 학점인정 유학 프로그램, 4+2 석사연계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교육 협력이 담긴 포괄 협력협정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북방국제대학연맹 학술교류협정 체결

12월 5일 중국 북경북방투자그룹 우바오더(WU BAODE) 부총재 및 산하 북방국제대학연맹 소속 대학들의 총장 및 관계자 일행이 본교를 방문하여, 동서대와 북방국제대학연맹 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장제국 총장과 우바오더 부총재는 양 기관 간의 교육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교환학생프로그램, 공동교육과정프로그램, 동서대의 디자인, IT, 영화, 영상 등 특성화 분야의 선진화된 기술과 플랫폼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KBS부산방송총국, (주)비브스튜디오스와 산학협정 체결

KBS부산방송총국과 (주)비브스튜디오스, 동서대학교는 8월 11일 동서대 글로벌룸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업 협력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문화콘텐츠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각 영역에서 축적해 온 정보 및 인적자원을 적극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문화콘텐츠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건축학과, 대한민국 한국공모전 학생부문 대상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한국공모전에서 건축학과 학생팀이 학생부문 대상(전체 1등, 상금 1,000만 원)을 수상하였다. 건축학과 3학년 이상하, 김민주, 정진규, 석다윤팀은 [잇:다]라는 작품으로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고양시 창릉 신도시(예정지)를 대상으로 상업·주거·문화공간의 특성을 살리면서, 각 공간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계획해 미래 한옥 도시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설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송월과 클래스셀링® 업무협약 체결

(주)송월은 동서대학교와 클래스셀링® 운영을 위해 9월 5일 뉴밀레니엄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동서대학교와 (주)송월이 동영상을 활용한 송월타올 생산라인 교육 매뉴얼 제작(캡스톤디자인) 산학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양 기관은 다양한 산학협력으로 지역인재양성과 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으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졸업생 이영은 선수, 항저우아시안게임 요트 종목 동메달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 요트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한 졸업생 이영은(체육학과 12학번)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카이트보딩은 대형 연을 풍력으로 삼아 물 위로 보딩을 가로지르는 해양스포츠로, 이영은 선수(부안군청 소속)는 카이트보딩이 국내에서 비인기종목임에도 꾸준히 도전을 이어오며 성적을 내어 왔다. 수년간 전국 카이트보딩 대회에서 1위를 유지하였고, 특히 2018 Thailand Kiteboarding Championship 프리스타일에서 아시아 챔피언에 오른 바 있다.



전국 10개 LINC 3.0 사업단과 ESG 대학연합 업무협약 체결

LINC 3.0 사업단은 11월 9일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경남대와 동국대, 고려대, 대전대, 한서대, 제주대, 호남대, 계명대, 한림대 간 ‘LINC 3.0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ESG 대학연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각 대학은 ‘ESG 기반 산학협력 정보공유, 공동연구’, ‘ESG 기반 대학 인프라, 아이디어 공유 및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 협업 활동’, ‘대학 간 ICC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미래 신산업 및 지역 정부 맞춤형 인재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총학생회,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진행

총학생회는 11월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총학생회와 지역 봉사자들이 힘을 합해 정성껏 만든 김치는 학장동행정복지센터에 150박스, 주례 1, 2, 3동에 50박스 등 총 200박스(500만 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이웃 주민들에게 추위를 이겨낼 따뜻한 위로의 의미도 함께 담아 전달되었다.